

## 제2장

#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제1절 지역의 기초현황
- 제2절 경남의 여건 변화
- 제3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 제2장

##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제1절

지역의  
기초현황

〈표 1-2-1〉  
경상남도 위치

##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 1) 지리적 여건

-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 동쪽으로 부산·울산광역시, 남쪽으로 남해, 북쪽으로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 서쪽으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함
- 지리적 좌표는 북위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4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음

구분	경도 및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방위	지명	극점	
위치	극동	양산시 웅상읍 웅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위 35도 24분	동서 150km 남북 158km
	극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위 35도 18분	
	극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위 34도 29분	
	극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위 35도 54분	

자료 : 경상남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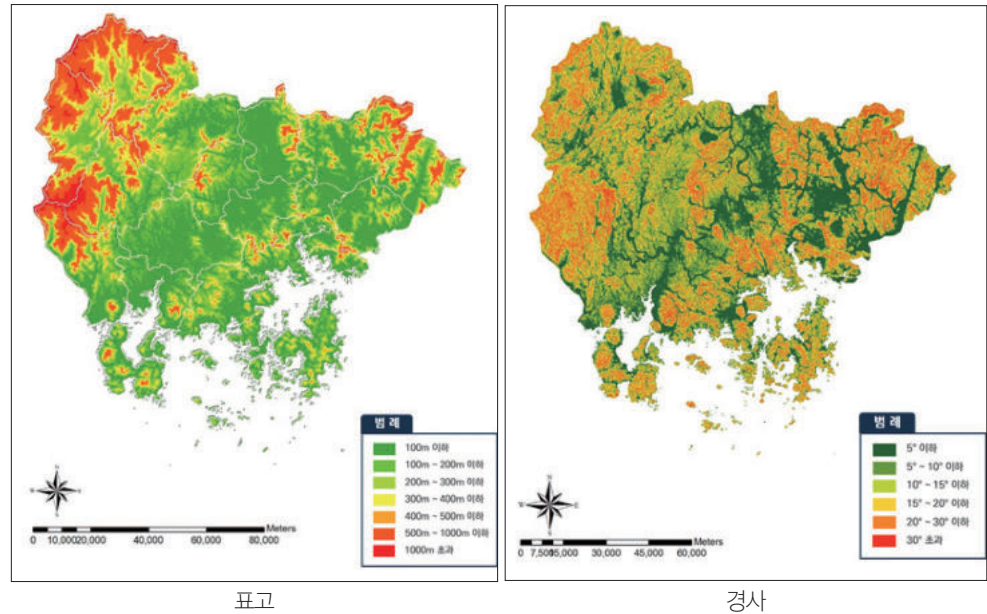
## 2) 자연환경

## (1) 지형·지세

-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지대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저지대가 37%, 100~500m 지대가 49%, 500~1,000m의 지대가 12%,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2%에 불과하고, 동부 산악 지대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산악들이 발달해 있음
- 중앙 저지대는 낙동강 강변 지대로 낙동강은 본도에 들어와서 각 지류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됨.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 산간지대는 경남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1,614m), 백운산(1,279m) 등 고봉(高峯)이 이어 있으며, 특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준함

〈그림 1-2-1〉

경상남도 표고 및 경사



## (2) 해안 및 하천

- 수심이 깊고 출입이 심한 만입과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하는 다도해를 이룸. 총 도서는 2017년 통계 기준으로 865개로 통영시가 570개로 가장 많은 도서가 존재함

〈표 1-2-2〉

해안선 및 도서 현황  
(2017년 기준)

구분	해안선(km) (도서 포함)	도서 현황				
		계(개)	유인도(개)	무인도(개)	면적(km <sup>2</sup> )	인구(명)
창원시	324	39	5	34	2.97	416
통영시	761	570	41	529	91.39	6,681
사천시	200	43	10	33	4.84	1,064
거제시	443	73	10	63	22.08	2,981
고성군	229	28	2	26	0.60	33
남해군	358	82	3	79	1.20	130
하동군	75	30	1	29	1.50	91
소계	2,390	865	72	793	124.56	11,396

자료 : 경상남도 통계, 2017.

- 경상남도는 10개소의 국가하천과 671개소의 지방하천 등 총 681개의 하천이 입지함. 총 유로 연장은 4,178.5km로 전국 하천 30,197.6km의 13.8%를 차지함
- 지방하천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합천군이 77개, 총연장 431.8km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진주시가 53개소, 305.6km의 연장을 차지함. 창원시는 진주와 같이 53개소의 하천을 가졌으며 연장은 246.4km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km, %)

〈표 1-2-3〉

## 수계별 하천 현황

	구분	하천 수	총연장	요개수 연장	기개수 연장	미개수 연장	개수율
	합계	681	4,178.5	4,481.8	1,919.1	2,562.8	42.8
국가	소계	10	440.3	408.0	348.7	59.3	85.5
지방	소계	671	3,738.2	4,073.9	1,570.4	2,503.5	38.6
	창원시	53	246.4	361.2	172.1	189.2	47.6
	진주시	53	305.6	339.4	89.9	249.5	26.5
	통영시	8	24.4	33.7	4.8	28.8	14.4
	사천시	28	154.7	165.0	44.9	120.1	27.2
	김해시	28	158.9	256.6	123.9	132.7	48.3
	밀양시	46	259.9	249.6	120.6	128.9	48.3
	거제시	17	64.0	94.0	37.2	56.8	39.6
	양산시	31	151.9	125.3	71.3	54.0	56.9
	의령군	38	213.4	230.6	79.4	151.2	34.4
	함안군	28	164.1	202.7	85.7	117.0	42.3
	창녕군	33	233.7	289.2	87.0	202.2	30.1
	고성군	39	181.2	317.1	132.4	184.7	41.8
	남해군	26	72.4	99.5	20.1	79.4	20.2
	하동군	40	231.9	293.4	84.0	209.4	28.6
	산청군	46	287.4	172.2	39.6	132.6	23.0
	함양군	39	260.5	230.4	83.9	146.6	36.4
	거창군	41	296.0	270.6	179.7	90.9	66.4
	합천군	77	431.8	343.6	114.0	229.5	33.2

자료 : 경상남도 통계, 2017.

## 2. 인구 현황

## 1) 총인구 및 인구변화(주민등록인구 기준)

## (1) 총인구

- 경남 총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19년 3,362,553명이며, 전국 6.4%를 차지함
- 경남의 연평균 증가율은 05~10년, 10~15년 구간에서 전국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최근 15~19년은 경남의 증가율이 소폭(0.02%) 감소함

- 05~10년도 : (전국) 0.70% (경남) 0.81% 10~15년도 : (전국) 0.40% (경남) 0.45%

- 15~19년도 : (전국) 0.16% (경남) -0.63% 05~19년도 : (전국) 0.44% (경남) 0.44%

(단위 : 명, %)

〈표 1-2-4〉

전국 대비  
경남 인구 비중 추이  
(2005~2019)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05~ '10	'10~ '15	'15~ '19	'05~ '19
전국 인구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9,861	0.70	0.40	0.16	0.44
경남 인구 (전국 대비 비중)	3,160,431 (6.5)	3,290,536 (6.5)	3,364,702 (6.5)	3,362,553 (6.4)	0.81	0.45	-0.02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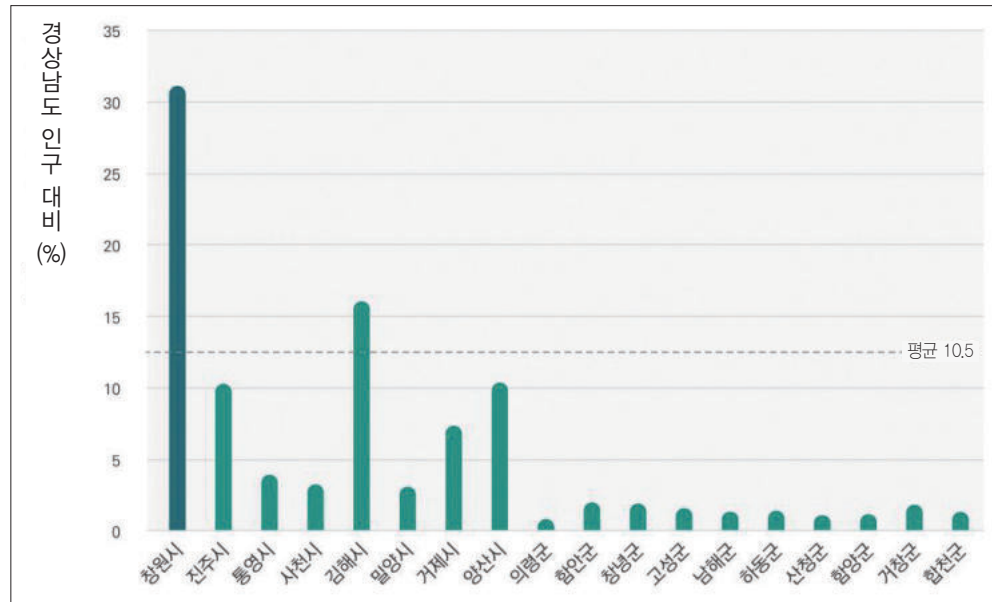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 (2) 시군별 인구

- 2019년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인구의 비는 창원시(31.1%), 김해시(16.1%), 진주시(10.3%)의 순으로 나타남. 인구가 낮은 순서는 의령군(0.8%), 산청군(1.1%), 함양군(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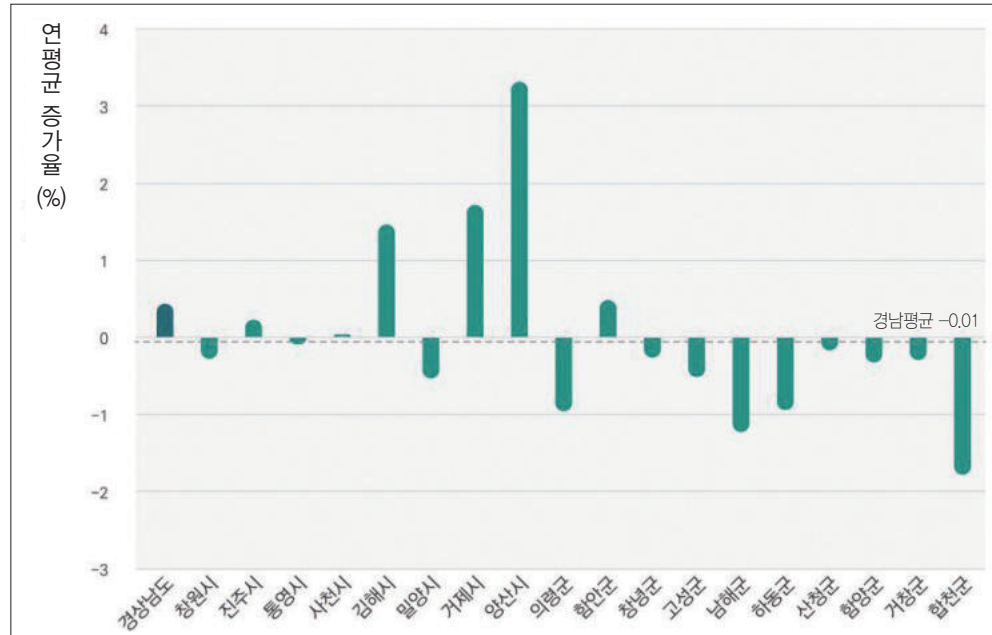
〈그림 1-2-2〉

경상남도 대비  
시군별 인구비율  
(2019)



〈그림 1-2-3〉

시군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5~2019)



〈표 1-2-5〉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  
(2005~2019)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05~ '10	'10~ '15	'15~ '19	'05~ '19
경남	3,160,431	100.0	3,290,536	100.0	3,364,702	100.0	3,362,553	100.0	0.81	0.45	-0.02	0.44
창원시	1,086,530	34.4	1,090,181	33.1	1,070,064	31.8	1,044,740	31.1	0.07	-0.37	-0.60	-0.28
진주시	336,234	10.6	335,037	10.2	344,426	10.2	347,334	10.3	-0.07	0.55	0.21	0.23
통영시	132,795	4.2	140,297	4.3	139,168	4.1	131,404	3.9	1.11	-0.16	-1.42	-0.08
사천시	111,293	3.5	114,148	3.5	115,452	3.4	111,925	3.3	0.51	0.23	-0.77	0.04
김해시	443,017	14.0	503,348	15.3	528,865	15.7	542,455	16.1	2.59	0.99	0.64	1.46
밀양시	113,636	3.6	110,479	3.4	107,896	3.2	105,552	3.1	-0.56	-0.47	-0.55	-0.53
거제시	195,609	6.2	228,355	6.9	255,828	7.6	248,276	7.4	3.14	2.30	-0.75	1.72
양산시	222,299	7.0	260,239	7.9	301,291	9.0	350,759	10.4	3.20	2.97	3.87	3.31
의령군	31,099	1.0	30,162	0.9	28,544	0.8	27,168	0.8	-0.61	-1.10	-1.23	-0.96
함안군	61,376	1.9	67,207	2.0	69,156	2.1	65,700	2.0	1.83	0.57	-1.27	0.49
창녕군	64,672	2.0	61,714	1.9	63,817	1.9	62,331	1.9	-0.93	0.67	-0.59	-0.26
고성군	56,189	1.8	57,231	1.7	55,284	1.6	52,276	1.6	0.37	-0.69	-1.39	-0.51
남해군	51,825	1.6	49,328	1.5	45,865	1.4	43,622	1.3	-0.98	-1.45	-1.25	-1.22
하동군	53,131	1.7	51,509	1.6	50,259	1.5	46,574	1.4	-0.62	-0.49	-1.89	-0.94
산청군	36,294	1.1	35,591	1.1	36,071	1.1	35,417	1.1	-0.39	0.27	-0.46	-0.17
함양군	41,535	1.3	41,197	1.3	40,339	1.2	39,637	1.2	-0.16	-0.42	-0.44	-0.33
거창군	64,735	2.0	63,421	1.9	63,232	1.9	62,179	1.8	-0.41	-0.06	-0.42	-0.29
합천군	58,162	1.8	51,092	1.6	49,145	1.5	45,204	1.3	-2.56	-0.77	-2.07	-1.78

주 : 비중은 경남 전체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 2005~2019년 경남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444%로 동 기간 전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437%)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05~2019년 기간 경남도에서 인구 성장이 높은 지역은 양산시(3.31%), 거제시(1.72%), 김해시(1.46%) 등으로 나타남

### (3) 도시인구

- 경상남도의 최근 10년간 도시인구와 도시화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반면 증가 추세는 둔화함
  - 2005년 84.4%, 2010년 84.5%, 2015년 84.8%로 지속해서 도시화율이 증가함
  - 2005~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0.83%로 나타났으나, 2010~2015년 기간에는 0.52%로 둔화함
-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함
  - 2005년 492,480명, 2010년 540,226명, 2015년 510,908명으로 소폭 증가함
  -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0년 0.71%로, 2010~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0.03%로 증가 속도 감소

〈표 1-2-6〉

도시인구  
변화추이  
(2005~2015)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05~'10	'10~'15	'15~'18	'05~'18
경남	3,160,431	3,290,536	3,364,702	3,373,988	0.81	0.45	0.09	0.50
도시인구	2,667,951	2,780,310	2,853,794	2,894,899	0.83	0.52	0.48	0.63
비도시인구	492,480	510,226	510,908	479,089	0.71	0.03	-2.12	-0.21
도시화율	84.4	84.5	84.8	85.8	0.02	0.08	0.38	0.12

주 :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의미함. 도시인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각연도).

## 2) 인구구조

- 2019년 기준 경상남도 15세 미만의 인구는 13.2%로 전국 평균(12.5%)보다 조금 높지만, 15~64세의 인구는 70.5%로 전국 평균(73.1%)보다 낮고, 65세 이상 인구는 16.3%로 전국 평균(15.5%)보다 높음
- 15세 미만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1-2-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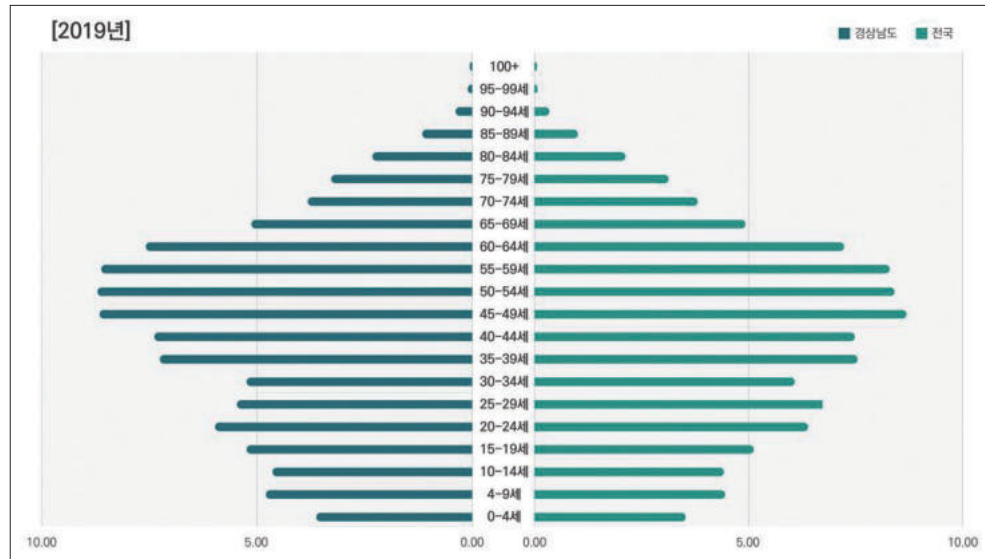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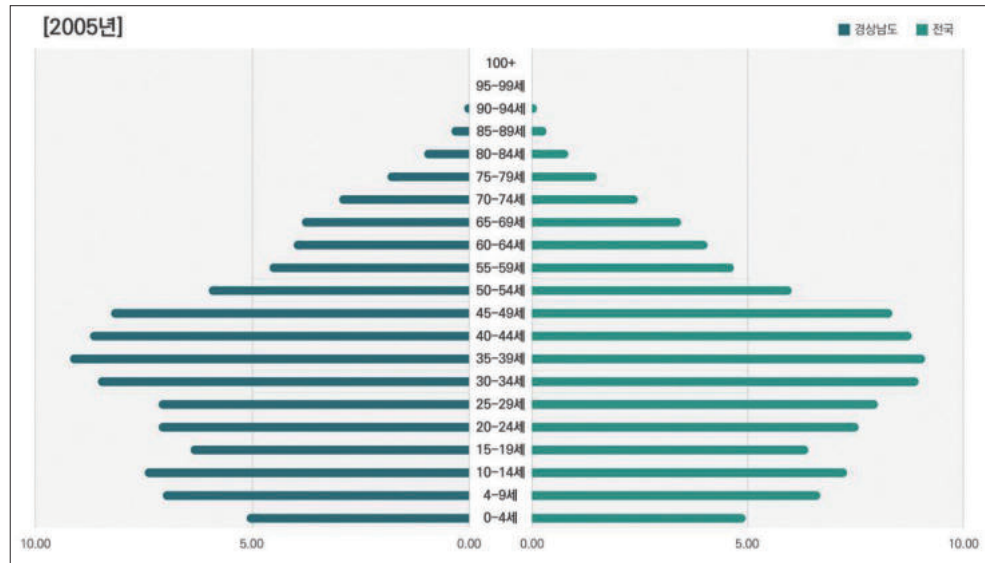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체 (비중)	48,782,274 (100.0)	3,160,431 (100.0)	50,515,666 (100.0)	3,290,536 (100.0)	51,529,338 (100.0)	3,364,702 (100.0)	51,849,861 (100.0)	3,362,553 (100.0)
15세 미만 (비중)	9,257,949 (19.0)	622,109 (19.7)	8,019,969 (15.9)	547,606 (16.6)	7,061,513 (13.7)	482,785 (14.4)	6,466,872 (12.5)	442,744 (13.2)
15~64세 (비중)	35,199,801 (72.2)	2,214,424 (70.1)	36,989,345 (73.2)	2,354,282 (71.6)	37,692,724 (73.2)	2,417,898 (71.9)	37,356,074 (72.1)	2,371,552 (70.5)
65세 이상 (비중)	4,324,524 (8.9)	323,898 (10.3)	5,506,352 (10.9)	388,648 (11.8)	6,775,101 (13.2)	464,019 (13.8)	8,026,915 (15.5)	548,257 (16.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그림 1-2-4〉

전국 대비  
경남의 연령별 인구비율  
피라미드



- 2019년 경남 시·군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인구에서 거제시(17.2%), 양산시(15.1%), 김해시(15.1%)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합천군(6.4%), 남해군(6.8%), 의령군(6.8%) 등 군 지역에서 낮은 비율로 조사됨
- 15~64세 생산인구는 김해시(74.3%), 창원시(73.6%), 거제시(72.7%)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합천군(55.5%), 남해군(56.6%), 의령군(57.5%) 등이 낮은 비율의 생산인구가 도출됨
- 고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합천군(38.2%), 남해군(36.7%), 의령군(35.7%)이 높게 도출되며, 거제시(10.0%), 김해시(10.6%), 양산시(12.7%) 등이 낮게 나타남
- 사천시, 밀양시와 모든 군 지역에서 초고령 사회<sup>3)</sup>에 진입

3)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가 20% 이상.



〈표 1-2-8〉

시군별  
연령별 인구  
(2019)

(단위 : 명, %)

구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경남	442,744	13.2	2,371,552	70.5	548,257	16.3
창원시	135,929	13.0	768,660	73.6	140,151	13.4
진주시	46,407	13.5	245,028	70.6	55,899	16.1
통영시	17,346	13.2	90,163	68.6	23,895	18.2
사천시	13,937	12.5	74,560	66.6	23,428	20.9
김해시	81,955	15.1	402,968	74.3	57,532	10.6
밀양시	9,658	9.2	67,345	63.8	28,549	27.1
거제시	42,808	17.2	180,576	72.7	24,892	10.0
양산시	53,109	15.1	253,019	72.1	44,631	12.7
의령군	1,850	6.8	15,629	57.5	9,689	35.7
함안군	7,644	11.6	42,702	65.0	15,354	23.4
창녕군	5,461	8.8	38,444	61.7	18,426	29.6
고성군	4,771	9.1	31,928	61.1	15,577	29.8
남해군	2,951	6.8	24,684	56.6	15,987	36.7
하동군	3,532	7.6	27,922	60.0	15,120	32.5
산청군	2,558	7.2	20,415	57.6	12,444	35.1
함양군	3,340	8.4	23,461	59.2	12,836	32.4
거창군	6,595	10.6	38,981	62.7	16,603	26.7
합천군	2,893	6.4	25,067	55.5	17,244	38.2

주 :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연령인구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 3. 지역경제 현황

#### 1) 지역 내 총생산(GRDP)

- 전국 대비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전국 대비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율 : 10년 6.8%, 15년 6.4%, 18년 5.8%
- 경남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2010년 90.2조원에서 2015년 106.6조원, 2018년 110.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10년 98.3조원, 2015년 106.6조원, 2018년 107조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함

〈표 1-2-9〉

지역 내 총생산  
(GRDP) 추세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연평균 성장률		
					'10~'15	'15~'18	'10~'18
전국 GRDP	명목	1,327,444	1,660,844	1,900,007	4.58	4.59	4.58
	실질	1,432,684	1,660,844	1,811,590	3.00	2.94	2.98
경남 GRDP	명목	90,168	106,591	110,536	3.40	1.22	2.58
	(비중)	(6.8)	(6.4)	(5.8)			
	실질	98,297	106,591	106,993	1.63	0.13	1.07
	(비중)	(6.9)	(6.4)	(5.9)			

주 : 기준년 가격 2015년 기준.  
자료 : 통계청

#### 2) 산업구조

##### (1) 산업구조(실질 GRDP 기준)

- 2015년 기준연도 최근 9년간 전국과 경남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살펴본 결과 전국 대비 경남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전국의 산업구조는 2018년을 2010년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1차 산업 0.4% 감소, 2차 산업 0.6% 감소, 3차 산업 1.0%가 증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 경남의 산업구조는 2010년 1차 산업 3.8%, 2차 산업 54.4%, 3차 산업 40.8%였으며, 2018년에는 1차 산업 3.92%, 2차 산업 48.63%, 3차 산업 47.44%로 1차 산업이 약 0.1% 증가, 2차 산업이 6.8% 감소, 3차 산업이 6.7% 증가함
- 경남은 전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차 산업이 하향 폭이 더 크게 나타남. 반면 3차 산업의 증가폭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전국이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경남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1-2-10〉

전국, 경남  
연도별 산업 비중

(단위 : %)

구분	전국			경남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10년	2.3	37.5	60.2	3.8	55.4	40.8
2011년	2.2	37.4	60.4	3.6	54.3	42.1
2012년	2.2	37.0	60.9	3.3	53.7	43.0
2013년	2.2	36.8	61.1	3.5	52.1	44.4
2014년	2.2	36.7	61.1	3.7	50.8	45.5
2015년	2.2	36.6	61.2	3.6	50.3	46.1
2016년	2.0	36.7	61.3	3.5	50.2	46.3
2017년	2.0	37.2	60.9	3.6	49.4	47.0
2018년	2.0	36.9	61.2	3.9	48.6	47.4

주 : 1차 - A코드, 2차 - B, C, D, E,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통계청 자료 활용. 실질 GDP 기반 산업 비중(2015년 기준).

## (2) 산업별 종사자

- 경상남도의 산업별 종사자는 2018년 1차 산업 취업자가 3.3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0.2%를 차지함. 전국 평균 또한 0.2%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도출됨
- 경남의 2차 산업 종사자는 5,777.0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6.5%임. 전국 평균 26.0%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3차 산업 종사자는 경남이 63.3%로 전국 평균 73.8%에 비해 낮음

〈표 1-2-11〉

전국과 경남의  
산업별 종사자  
비교표  
(2018)

(단위 : 명, %)

구분	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국 (비중)	22,234,774 (100.0)	42,324 (0.2)	5,776,919 (26.0)	16,415,531 (73.8)
경남 (비중)	1,388,302 (100.0)	3,282 (0.2)	506,683 (36.5)	878,337 (63.3)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차 - A코드, 2차 - B, C, D, E,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3)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계수(LQ)

- 시군별 특화산업 파악을 위해 제조업 종사자 수 기준의 입지계수(LQ)를 분석함
- 경남은 식료, 음료, 담배, 목재 및 나무 제품,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제조, 금속가공제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음

(단위 : LQ)

〈표 1-2-12〉

경상남도 제조업의  
시군별 입지계수  
(종사자 기준)

구분	식료제조	음료제조	담배제조	섬유제조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조	가죽·가방및신발제조	목재및나무제품제조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제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	의료·의약품및의약품제조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조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기타제품제조	가구제조	기타제품제조	상업용기계및장비수리
경남	1.3	1.8	7.3	0.7	0.2	0.5	1.5	1.0	0.4	0.8	0.7	0.2	1.8	1.3	1.9	2.2	0.3	0.7	1.9	2.3	1.8	7.3	0.7	0.7	0.9
진주	0.7	0.3	0.0	0.6	0.2	0.0	0.5	1.3	0.3	0.0	0.3	0.0	0.4	0.7	0.6	0.4	0.0	0.2	0.2	1.6	1.1	0.5	0.4	0.5	0.5
통영	2.6	0.4	0.0	0.3	0.1	0.1	0.3	0.0	0.2	0.0	0.2	0.0	0.0	0.6	0.0	0.1	0.1	0.1	0.0	0.1	0.0	5.3	0.2	0.5	3.0
사천	1.9	0.4	740	0.1	0.0	0.0	1.6	1.2	0.1	0.0	0.1	0.0	0.1	1.1	0.8	0.8	0.9	0.1	0.4	2.2	1.0	27.5	0.4	0.4	1.1
김해	1.2	0.3	0.0	1.5	0.1	2.6	3.4	1.8	0.4	1.8	1.3	0.1	4.4	1.9	2.9	3.5	0.4	0.8	1.6	3.7	2.6	1.7	1.8	1.5	0.8
밀양	1.5	1.3	0.0	2.5	0.1	0.4	1.3	0.9	0.3	0.8	0.7	0.1	2.2	3.0	2.2	2.3	0.0	0.1	0.1	1.2	1.3	1.4	0.7	3.1	0.9
거제	0.6	0.2	0.0	0.1	0.1	0.0	0.1	0.0	0.1	0.1	0.0	0.0	0.0	0.3	0.1	2.4	0.0	0.2	0.0	0.0	0.0	52.3	0.2	0.3	0.3
양산	1.8	4.7	437	2.0	0.5	0.2	1.7	2.4	0.2	3.1	2.1	0.9	6.0	1.9	2.0	2.2	0.3	1.0	1.7	1.7	2.7	0.4	1.3	0.5	0.6
창원	0.5	1.6	0.0	0.2	0.1	0.0	0.7	0.2	0.8	0.2	0.1	0.0	0.5	0.5	2.1	2.4	0.5	1.2	4.1	3.1	2.4	3.4	0.3	0.4	0.8
의령	3.3	0.7	0.0	0.9	0.1	0.0	0.8	3.8	1.2	0.0	0.5	0.6	0.5	1.6	2.6	1.7	0.0	0.0	0.6	1.3	1.0	0.9	0.6	0.2	0.6
함안	1.6	4.1	0.0	0.4	0.0	0.0	7.0	3.7	0.3	1.6	1.8	1.0	2.0	4.3	7.6	7.0	0.4	0.7	2.0	5.6	3.2	4.5	0.3	0.9	1.3
창녕	3.5	1.5	0.0	0.9	0.0	0.0	2.5	1.5	0.1	0.0	1.6	0.0	4.3	2.3	3.9	2.3	0.0	0.5	0.3	1.9	4.5	0.1	0.4	0.8	1.0
고성	5.6	2.0	0.0	0.3	0.0	0.2	0.5	0.1	0.1	0.0	1.2	0.0	0.3	1.6	0.2	1.4	0.2	0.0	0.1	0.1	0.1	19.0	1.0	0.4	1.0
남해	3.0	1.3	0.0	0.1	0.0	0.0	0.2	0.1	0.1	0.0	0.2	0.5	0.0	0.6	0.0	0.2	0.0	0.2	0.0	0.0	0.0	0.9	0.3	0.5	2.3
하동	3.3	3.5	0.0	0.0	0.1	0.0	0.9	0.0	0.1	3.6	0.1	0.0	0.2	3.1	0.2	0.2	0.0	0.1	0.2	0.1	0.0	0.6	0.2	0.3	1.5
산청	4.2	18.1	0.0	0.8	0.0	0.0	1.7	0.6	0.1	0.0	0.7	0.4	0.2	4.4	0.3	1.5	0.0	0.0	0.1	0.1	0.0	1.8	0.2	2.2	0.7
함양	3.4	12.9	0.0	0.3	0.0	0.0	1.5	0.2	0.3	0.0	0.3	0.0	0.2	5.6	0.2	0.6	0.0	0.1	0.0	0.1	0.7	0.0	0.3	0.5	1.1
거창	3.6	5.1	0.0	0.2	0.1	0.0	1.5	0.4	0.2	0.0	0.7	0.0	0.0	2.9	1.2	0.3	0.0	0.2	0.0	1.0	0.0	0.1	0.4	0.6	1.4
합천	2.6	5.1	0.0	1.3	0.7	0.0	1.0	0.2	0.0	0.0	0.5	0.0	0.3	5.4	0.0	0.2	0.0	0.1	0.0	0.1	0.0	0.0	0.1	0.6	1.2

주1 :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 /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주2 : LQ &gt; 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LQ = 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 LQ &lt; 1이면 전국에 비해 「비특화」.

자료 : 경상남도 통계, 통계청, 2018.

## 4. 인문 및 사회환경

### 1) 토지이용

#### (1) 지목별 토지이용

- 전국과 대비하여 경남을 살펴보면,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
- 경상남도의 2018년 지목별 토지 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3.9%, 농업용 토지가 18.1%, 임야 66.3%, 기타 11.7%의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km<sup>2</sup>, %)

〈표 1-2-13〉

전국과 경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18)

구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타
전국 (비중)	99,857.46 (100.0)	4,426.50 (4.4)	19,301.17 (19.3)	63,441.33 (63.5)	12,688.46 (12.7)
경남 (비중)	10,540.12 (100.0)	414.60 (3.9)	1,907.63 (18.1)	6,988.34 (66.3)	1,229.54 (11.7)

주 : 도시용 토지(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체육용지, 공원), 농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기타(도시용, 농업용, 임야를 제외한 토지)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 (2) 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2,007.7km<sup>2</sup>로 경남 전체면적의 17.0%에 해당됨. 이는 전국의 도시면적 비율인 16.7%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7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이 11.1%, 공업지역이 7.0%, 미지정지역이 7.0%, 상업지역 1.5%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용도지역 분포는, 경남의 주거지역 비율은 11.1%인데 비해 전국은 15.1%로 경남의 주거비율이 낮고, 녹지지역은 73.5%로 전국(71.0%)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

(단위 : km<sup>2</sup>, %)

〈표 1-2-14〉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18)

구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비중)	17,788.93 (100.0)	2,683.90 (15.1)	334.64 (1.9)	1,198.13 (6.7)	12,628.46 (71.0)	943.79 (5.3)
경남 (비중)	2,007.72 (100.0)	222.22 (11.1)	29.45 (1.5)	140.20 (7.0)	1,474.58 (73.5)	141.27 (7.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 (3) 비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비도시지역은 전체지역의 83.0%를 차지하고 있음.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50.6%로 가장 높고, 관리지역 29.5%, 자연환경보전지역 19.8%로 나타남

- 경남은 전국과 대비하여 농림지역의 비율은 낮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지역의 경우 전국 55.8%, 경상남도 50.6%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 13.5%, 경상남도 19.9%

(단위 : km<sup>2</sup>, %)

〈표 1-2-15〉

비도시지역의 용도  
지역 현황(2018)

구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비중)	88,496.92 (100.0)	27,222.53 (30.8)	49,351.00 (55.8)	11,923.40 (13.5)
경남 (비중)	9,808.10 (100.0)	2,895.89 (29.5)	4,961.89 (50.6)	1,950.33 (19.9)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 2) 사회간접자본시설

- 경상남도 계획도로의 최근 포장률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포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포장률은 93.2%이며, 경남은 2.2% 낮은 91.0%를 기록함
- 2015년부터 2018년도의 증가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0.40%)과 경남(0.41%)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됨

- 생활환경지표인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전국 대비 경남이 낮으나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전국 97%, 경남 94.4%로 나타남.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37%, 경남 0.74%로 경남의 증가율이 더 높음
- 하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전국 93.9%, 경남 91%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65%, 경남 0.95%로 경남의 증가율이 더 높음

- 경상남도의 주택보급률은 신 주택보급률 기준 2018년 110.1%로 전국 평균 104.2% 보다 높게 나타남. 주택 보급률 증가 추이 또한 경남이 전국보다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0.32%, 경남의 경우 0.50%로 나타남

〈표 1-2-16〉

전국과 경남의  
생활환경지표 비교

(단위 : %)

구분		년도				연평균 증가율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05-'10	'10-'15	'15-'18	'05-'18
도로 포장률	전국	—	—	92.1	93.2	—	—	0.40	—
	경남	—	—	89.9	91.0	—	—	0.41	—
상수도 보급률	전국	90.7	94.1	96.5	97.0	0.74	0.50	0.17	0.37
	경남	82.6	88.8	93.1	94.4	1.46	0.95	0.46	0.74
하수도 보급률	전국	83.5	90.1	92.9	93.9	1.53	0.61	0.36	0.65
	경남	76.7	83.6	88.6	91.0	1.74	1.17	0.89	0.95
주택 보급률 (신 주택보급률)	전국	98.3	100.5	102.3	104.2	0.44	0.36	0.62	0.32
	경남	100.6	104.4	106.4	110.1	0.74	0.38	1.15	0.50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각연도),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각연도), 환경부(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각연도)

## 3) 사회복지시설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71,228개소가 있으며 337,979명이 생활하고 있음. 전국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11.8%, 생활인원 비중은 6.0%를 차지함
-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시설의 비중이 높음. 경남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남 전체의 복지시설 중 99.1%를 차지함
  - 경남의 아동 시설은 0.31%, 장애인 복지시설 0.4%, 여성 복지시설 6.0%, 부랑인 시설 0.1%로 나타남
  - 경남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 경남의 복지시설 생활인원은 노인복지시설 81.0%, 장애인복지 시설 7.5%,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5.5%, 아동복지 시설 4.2%, 여성복지 시설과 부랑인 시설이 각각 0.2%로 조사됨

(단위 : 개소, 명, %)

〈표 1-2-17〉

전국과 경남의 사회  
복지시설 분포현황  
(2018)

구분	총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전국	71,228	337,979	450	12,207	68,726	275,544	1,604	29,949	285	4,647	45	7,989	118	7,643
(비중)	(100)	(100)	(0.6)	(3.6)	(96.5)	(81.5)	(2.3)	(8.9)	(0.4)	(1.4)	(0.06)	(2.4)	(0.2)	(2.3)
경남	8,414	20,428	26	860	8,335	16,555	32	1,536	17	326	—	1,119	4	32
(비중)	(100)	(100)	(0.3)	(4.2)	(99.1)	(81.0)	(0.4)	(7.5)	(0.2)	(1.6)	—	(5.5)	(0.1)	(0.2)
비율	11.8	6.0	5.8	7.0	12.1	6.0	2.0	5.1	6.0	7.0	—	14.0	3.4	0.4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한국도시통계.

#### 4) 문화 · 관광자원

- 국 · 도립공원, 전통사찰, 온천, 해수욕장, 문화재, 골프장, 관광축제 · 특구, 지정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분류됨
- 경상남도에는 4개소(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의 국립공원과 2개소(가야산, 연화산)의 도립공원이 분포함
- 대표적인 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경상남도에는 총 1,850건의 문화재(국보, 보물, 사저, 명승 등)가 분포함
- 21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2개의 관광단지가 분포함
- 시 · 군의 관광축제는 총 14건이며, 10월에 7건이 개최되고 있음

〈표 1-2-18〉

#####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분	개소 수	분포지역
국 · 도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4개소) :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 도립공원(2개소) : 가야산, 연화산
전통사찰	103개소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 표충사, 내원사 등
온천	3개소	부곡, 마금산, 가조
해수욕장	28개소	상주, 송정, 비진도, 학동몽돌, 남일대 등
문화재	1,850건	국보 11, 보물 165, 사적 51, 명승 12, 천연기념물 45, 국가무형문화재 19, 국가민속문화재 12, 등록문화재 43, 유형문화재 550, 무형문화재 39, 기념물 255, 민속문화재 21, 문화재자료 627
골프장	38개소	창원, 통도, 가야, 부곡, 용원, 진주, 정산,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등
관광축제	14건	진주남강유등축제(10월), 산청한방약초축제(9월), 통영한산대첩축제(8월), 밀양아리랑대축제(5월), 김해분청도자기축제(10월), 양산삼랑문화축전(10월), 마산가고파국화축제(10월), 개천예술제(10월), 거제섬꽃축제(10월), 의병제전(4월), 창녕낙동강유채축제(4월), 독일마을맥주축제(10월), 하동섬진강재첩축제(7월), 함양물레방아골축제(9월)
관광특구	2개소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지정관광지	21개소	창원 마금산, 진주 오목내, 통영 도남, 사천 실안, 밀양 표충사, 거제 장목, 거제 거가대교, 의령 벽계, 창녕 부곡, 고성 당항포, 남해 송정, 하동 목계, 산청 중산, 산청 전통한방휴양, 산청 금서, 함양 농월정, 거창 수승대, 거창 가조, 합천 미송산, 합천 합천호, 합천 합천보조댐
관광단지	2개소	창원 구산해양, 창원 웅동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18.



## 제2절

경남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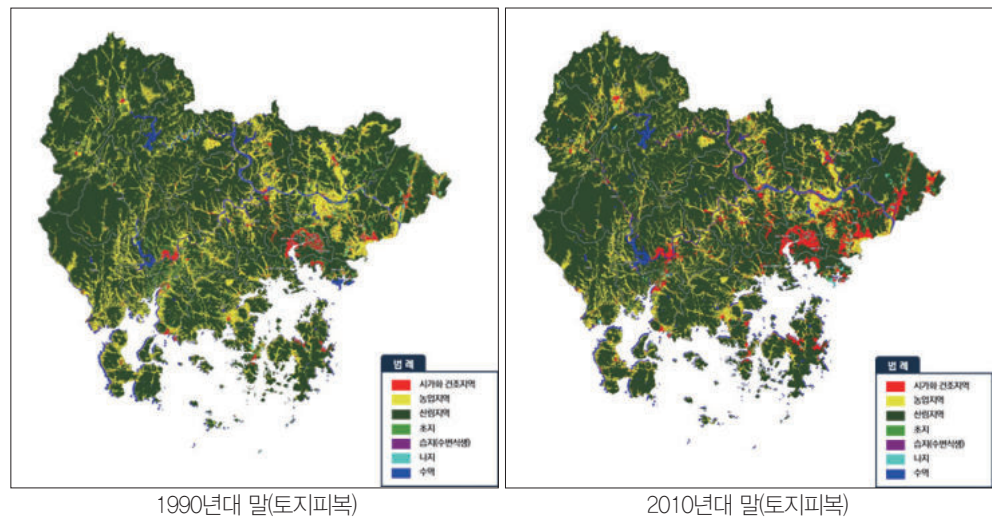
## 1. 공간구조 변화

## 1) 경남의 시가화 변화

- 경남의 시가지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형성
- 과거 20년간 창원, 진주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시가화 확대
- 부산과 인접한 김해, 양산은 지속해서 시가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서부·북부 경남 지역은 산악지형 등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시가화 지역의 변화가 크지 않음

〈그림 1-2-5〉

경남의 시가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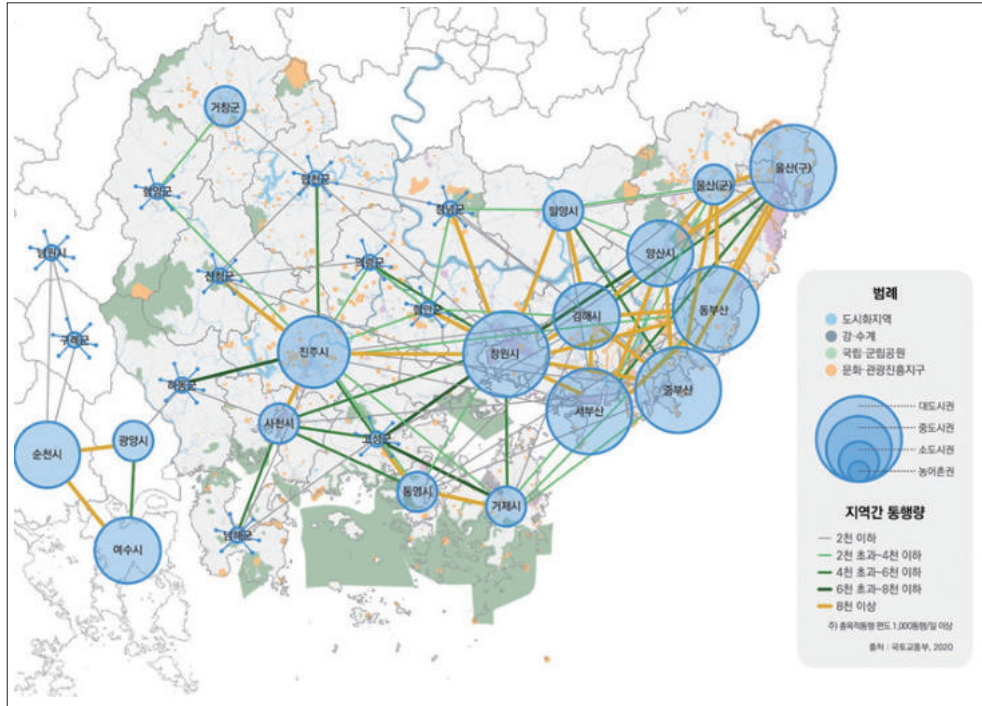


## 2) 지역 간 통행량

- 경남지역 내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창원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동부경남의 경우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시, 밀양시 등과의 통행량이 많으며 서부경남의 경우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산청군과의 통행량이 많음
- 경남지역 외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동부경남지역이 부산, 울산과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서부경남은 전라남도 시군과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6〉

경남의 지역 간 통행량



## 2.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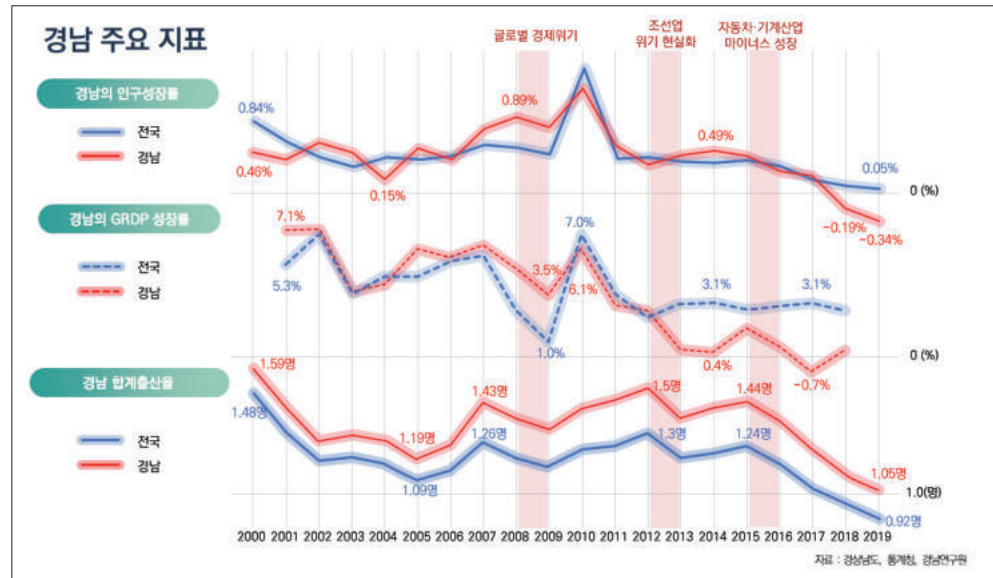
### 1) 경남의 인구 및 경제성장률 변화

- 경남의 인구는 2017년 정점(3,456천명)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지역 내 총생산량은 2000년 대비 현재(2018년 기준) 약 66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함
-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과거 20년간의 다양한 지표를 중첩하여 분석
  - 경남의 인구성장률은 2000년 0.46%에서 201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0.34% 기록
  - 경남의 GRDP는 2001년 7.1%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여 2017년에 -0.7% 기록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9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현재(2019년 기준) 1.05명으로 감소
- 경남의 인구성장률과 GRDP 성장률을 중첩하여 살펴보면 증감의 흐름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조선업 위기와 자동차·기계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음. 이에 대한 영향으로 경남의 인구성장률과 GRDP 성장률, 합계출산율이 변동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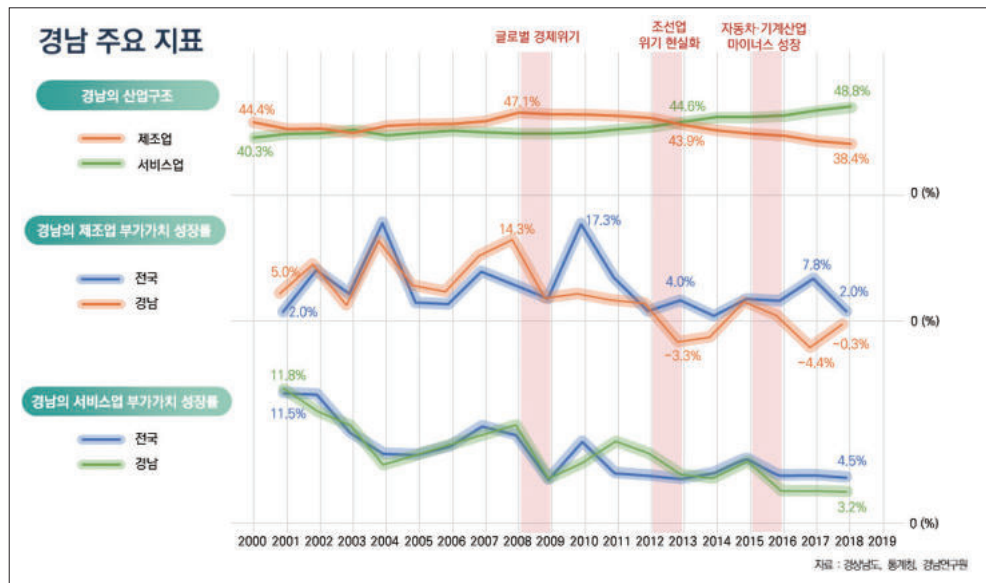
경남의 인구 및  
GRDP 성장률 변화



- 2000년 경남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로 40.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보다 높았으나,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
  - 2018년 기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 38.4%, 서비스업 비율 : 48.8%
- 제조업 비율이 줄어든 만큼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도 함께 하락
  - 특히 2012년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증감을 반복하나 2018년 기준에서도 마이너스(-0.3%) 기록
-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01년 경남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이 11.8%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기준 3.2%까지 하락함
  - 전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 보다 약 1.3%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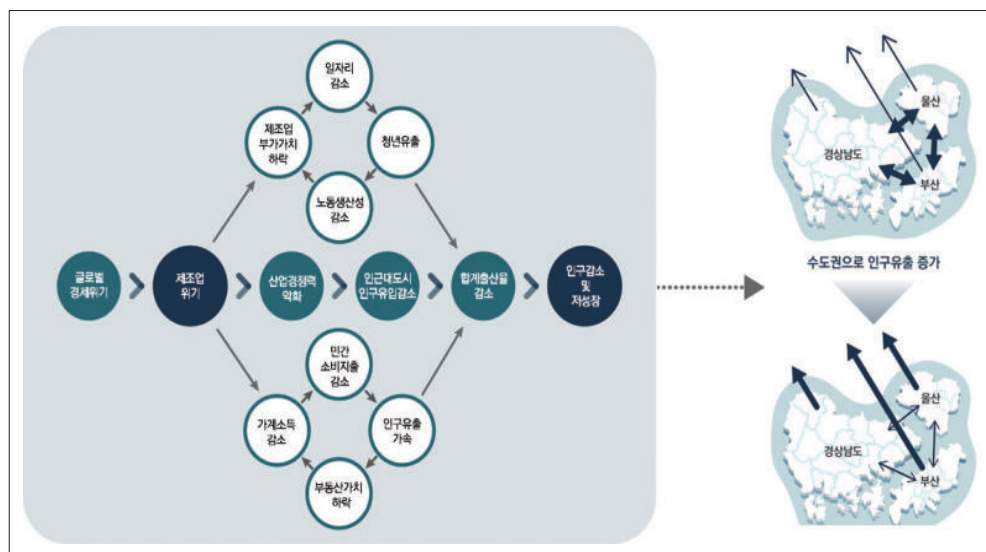
경남의 산업구조 변화



- 과거 20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업 위기,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양상을 보임
- 과거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가 취업 등의 목적으로 상호 간 유출입이 활발했으나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급증하고 있음

〈그림 1-2-9〉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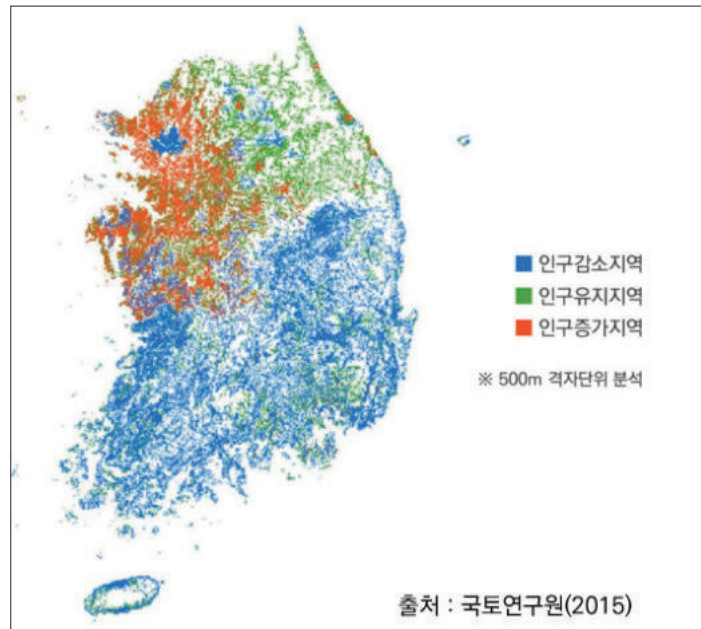
### 3. 국가적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1) 인구변화

- 국가적 미래 인구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함
- 2019년 기준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보임에 따라 예측하는 인구감소 시점보다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도권 외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감소 또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2-10〉

전국 인구변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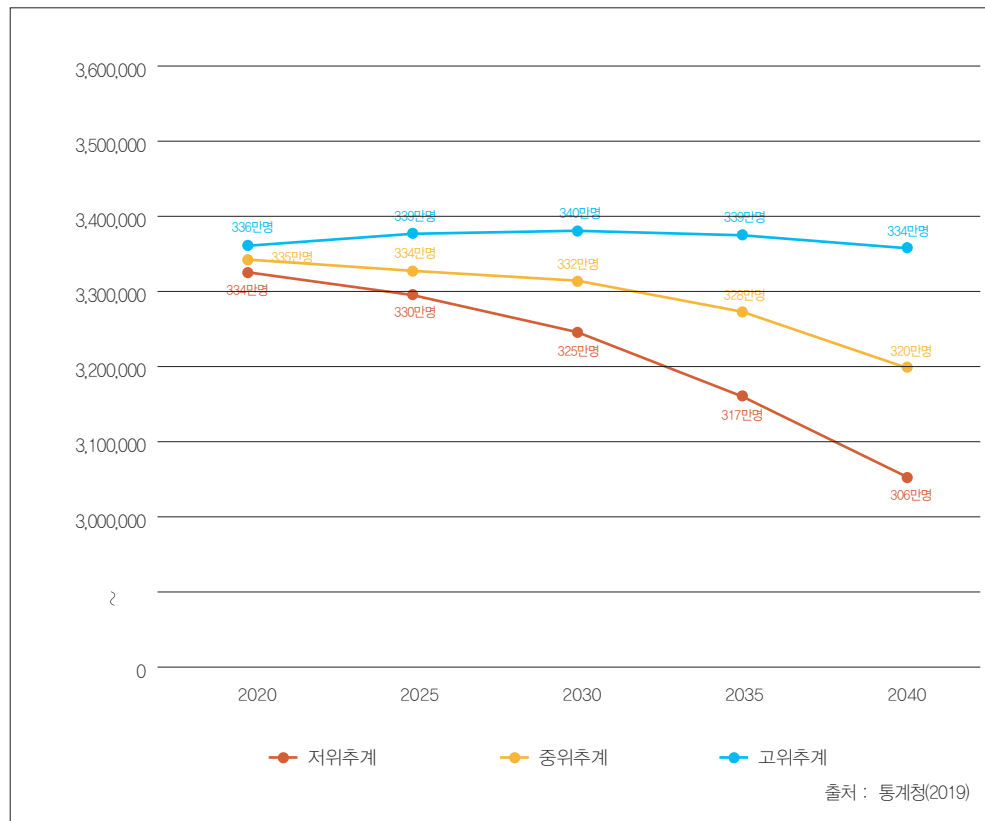
-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경남의 인구는 시나리오<sup>4)</sup>에 따라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고위추계 기준) 2030년까지 인구가 소폭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여 2040년까지 현재 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
- (중위추계 기준) 현재부터 인구가 소폭 감소하여 2040년 기준 320만명으로 예상함
- (저위추계 기준) 현재부터 인구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기준 30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4)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의 미래수준에 대한 추계 시나리오.

– 고위 : 출산율, 기대수명의 고위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 중위 :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 저위 :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저위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그림 1-2-11〉

## 경남의 인구변화 전망



## 2) 사회변화

- 국가적 사회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불평등 문제, 다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불평등 문제 : 소득양극화 심화,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의 확대 등
  -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등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 일-삶의 균형, 웰빙 생활스타일 등
  - 다문화 확산 :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종교 갈등 등
  -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 1인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독거노인 증가 등
  - 젠더이슈 심화 :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 난치병 극복 :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개선된 미래의료시스템 등
  - 신종감염병 발생 :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



〈그림 1-2-12〉

## 국가적 사회변화 트렌드

불평등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평등 고착; 계층간 이동성 저하;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의 확대 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일자리, 주거 등) 및 사회정치적 대표성/존재감 감소;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청년들의 좌절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일-삶의 균형;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문화; 웰빙 생활스타일 등
다문화 확산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이민족-이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부양-양육 개념의 변화; 독거노인 등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붕괴; 공교육의 해체; 스펙 경쟁; 전인교육의 부재 등
젠더이슈 심화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난치병 극복 (100세 시대)	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공장기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기술의 발전; 개선된 미래의료시스템 등
신종감염병 발생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

- 경남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함

- 2018년 경남사회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지역 간, 소득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에서는 연령별 이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1-2-13〉

##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 결과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6		100.0	18.0	47.1	34.9
2018		100.0	28.5	51.4	20.1
지역별	시 지역	100.0	28.4	51.6	20.0
	군 지역	100.0	22.7	56.2	21.1
월평균 소득별	10만원 미만	100.0	19.7	58.7	21.6
	100~200 미만	100.0	23.5	53.9	22.6
	200~300 미만	100.0	27.4	49.7	23.0
	300~400 미만	100.0	30.1	50.2	19.7
	400~500 미만	100.0	36.7	43.6	19.7
	500~600 미만	100.0	36.0	47.1	16.9
	600~700 미만	100.0	39.4	43.7	16.9
	70만원 이상	100.0	43.4	41.3	15.3

출처: 경남사회조사(2018)

〈그림 1-2-14〉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 결과

##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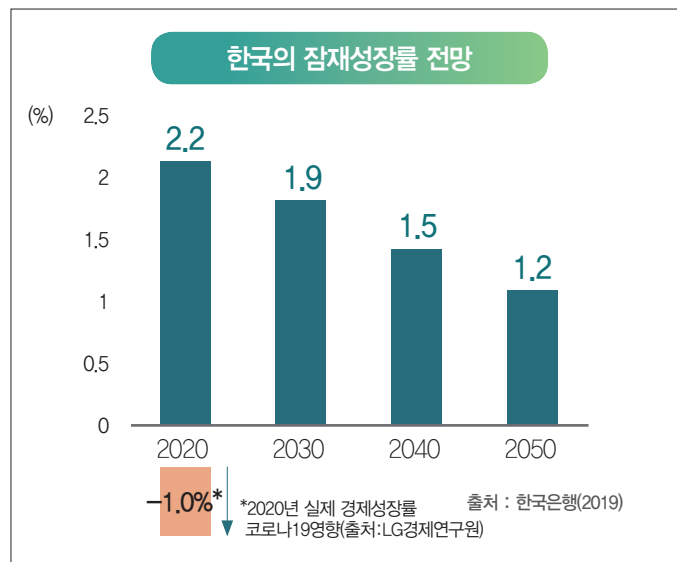
구분	이용 한다	이용하는 SNS							1일 SNS 접속 횟수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밴드	기타		1~3회	4~6회	6~9회	10회 이상
2018	54.9	27.0	14.3	30.2	1.9	25.8	0.8		40.0	25.7	13.1	21.2
연 령 별	15~19세	85.1	59.5	15.1	14.7	6.2	4.2	0.3	25.0	20.6	18.1	36.4
	20~29세	79.5	47.1	31.5	11.0	3.2	6.0	1.1	24.8	27.2	16.4	31.7
	30~39세	68.2	25.7	25.4	26.4	1.4	19.9	1.2	42.1	25.9	12.3	19.8
	40~49세	66.4	17.4	5.7	37.8	0.6	37.9	0.6	48.3	24.6	11.9	15.1
	50~59세	54.5	11.0	1.9	42.0	1.0	43.4	0.7	46.4	27.2	10.9	15.5
	60세 이상	35.8	8.2	0.5	48.9	0.9	40.5	1.1	48.0	29.3	9.8	12.9
	65세 이상	10.0	6.0	1.0	61.4	0.1	30.5	1.0	56.3	23.3	11.1	9.3

출처: 경남사회조사(2018)

## 3) 경제변화

- 201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2.2%에서 2030년 1.9%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2019년에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2020년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함
- 국가적·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놓여있는 만큼 세계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그림 1-2-15〉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 경남의 미래 경제·산업 구조 변화로는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첨단화, 생산자 서비스 성장 및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과 첨단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 제조 서비스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빅데이터, AI 산업의 성장
-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글로벌화 지속



- 제조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시대로의 전환
- 제조업 스마트와 결합한 ICT 산업 및 빅데이터, AI 산업 육성
- 그린수소,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 글로벌 메가시티 지역으로서의 동남권 경제의 도약

#### 4) 기술변화

- 국가적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등의 적극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30년까지 개발할 건설·교통·자동차·물류·주택·에너지 등 분야의 유망기술을 제시함
  - 인공지능(AI) 기술 :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관리시스템, 도로인프라 스마트유지관리 등
  - 이동수단의 혁명 : 완전 자율협력주행, 초연결 초고속철도시스템, 스마트 Mobility 서비스, PAV 등
  - 대면 기술의 진화 : AI 활용 건설 엔지니어링, 스마트 건설 로봇 등
  - 그린에너지 기술 : 수소도시,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환경플랜트 등
  - 기타 산업기술 : 인프라재료 혁신, 미래비행체(PAV) 부품개발 및 인증 등
- 경상남도는 이러한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자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 사업 등을 추진함

〈그림 1-2-16〉

국가 및 경남  
기술변화 전망



국가적 기술변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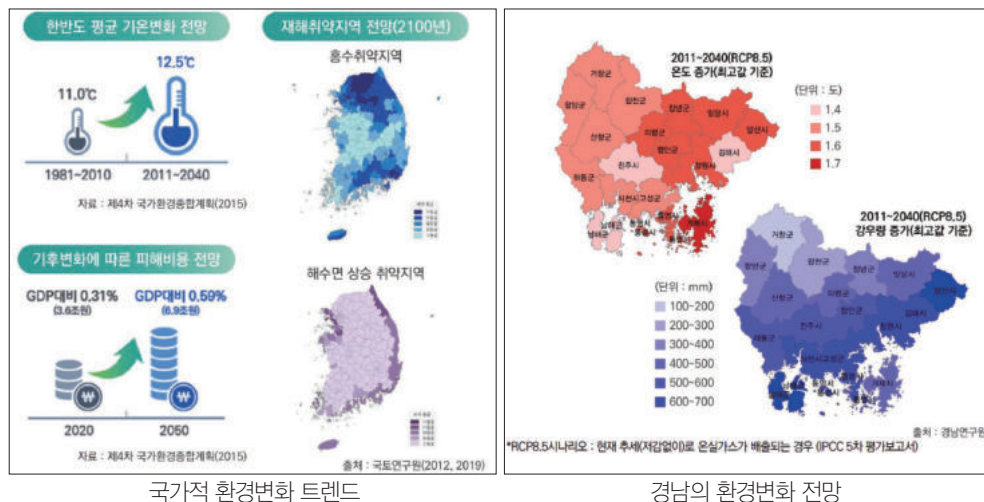
경남에서 추진하는 주요 기술사업

## 5) 환경변화

- 국가적·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취약지역이 증가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비용이 2050년에 GDP 대비 0.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함
- 경남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 온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따르면 RCP 8.5시나리오<sup>5)</sup>를 기준으로 경남도의 2011~2040년의 온도는 최대 1.7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강수량 또한 최대 600~700m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경남의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과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함께 경남도민의 환경 의식 개선 등의 사회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림 1-2-17)

국가 및 경남  
환경변화 전망

## 6) 정치행정변화

- 국가적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의 안보·통일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 중국과의 수출경쟁 등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증가 예상
-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화 예상
-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 현재 추세(저감 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IPCC 5차 평가보고서).

〈그림 1-2-18〉

국가적 정치행정변화  
트렌드

식량안보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
주변국가 지정학적 갈등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국지전; 테러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전자 민주주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글로벌 거버넌스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 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파트너십 확대 등

- 경남은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체제로의 전환과 주민 주권 구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19〉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주요사항  
(2020.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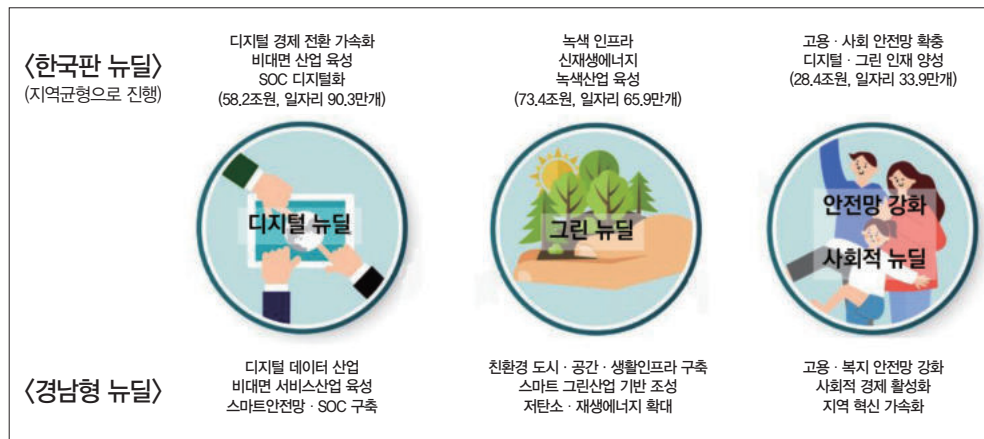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원리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등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사무배분,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사무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의원 겸직금지조항 정비,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등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관할구역 경계변경,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행정협의회 활성화,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특별지방 자치단체 등

- 북한과의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경남의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 : 선진적 남북협력모델 추구
  - 세계 10위권 북한 광물자원 연계 소재·부품사업 : 경남 제조업과 연계
  - 남북문화교류 : 윤이상 테마 남북음악 교류 등

##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변화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 그린 뉴딜 :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2-20〉

국가적 정치행정변화  
트렌드

-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도에서는 이와 부합하는 ‘경남형 뉴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데이터 산업,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안전망·SOC 구축 등
  - 그린 뉴딜 : 친환경 도시공간·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린산업 기반 조성, 저탄소·재생에너지 확대 등
  - 사회적 뉴딜 : 고용·복지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혁신 가속화 등

## 제3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1) 계획의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and 국민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국토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비전 수립

## 2) 계획의 목표

##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국토를 조성

##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접근성 기반의 생활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 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 기반 조성 and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1) 공간구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구현

##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and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력 제고
- 매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 and 활용도 제고
-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and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 and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 and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신경제구상 이행 and 경제 협력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 3) 주요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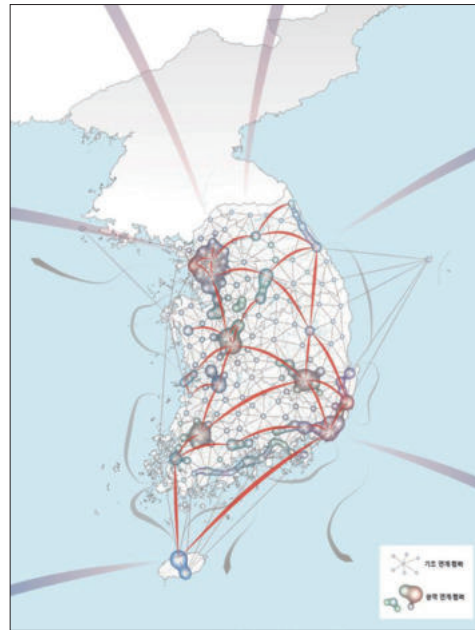
### (1) 개성 있는 지역 발전 and 연대·협력 촉진

####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

- 행정구역을 초월해 특정 권역이나 경계의 고정 없이 산업, 관광, 교통, 환경, 생활,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 및 지역 발전 촉진

〈그림 1-2-21〉

국토 공간 미래상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표 1-2-19〉

광역 연계·협력 지방  
자치단체 제안사업  
(예시) : 경남 관련

구분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	해당 지자체
산업·경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북아 글로벌 물류 플랫폼 육성	부산, 울산, 경남 등
환경	수자원 광역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부산, 울산, 경남 / 서울, 경기 등
	대기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미세먼지 공동 대응)	울산, 부산, 경남 등
문화·관광	관광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충남, 전북 등
	역사·문화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부산 등
교통 인프라	도로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 (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 연계 등)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북 등
	철도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주 :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연계·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 일부 내용 발췌 정리(경남이 속한 부분만 편집).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지역 연계·협력 지원기반 구축

- 지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광역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 산업 생태계구축
- 중앙정부는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광역적 행정수요와 신산업 도입, 현안에 유연한 대응 지원
  - 중소도시 연계형 : 기업-대학-혁신기관 간 연계 강화, KTX·공항 등 교통거점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 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강화
  - 관광·휴양자원 연계형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화 및 체류 인구 공동 유치 추진 등(광역관광 루트 구상과 연계)



〈그림 1-2-22〉

지역 간 연계 · 협력 유형  
(남해안 관광 · 휴양자원  
연계 루트 구상)



주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예시로 제시.

자료 : 국토교통부(2017)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연구.

- **중앙-지방 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 경남 : 남부내륙철도

## (2)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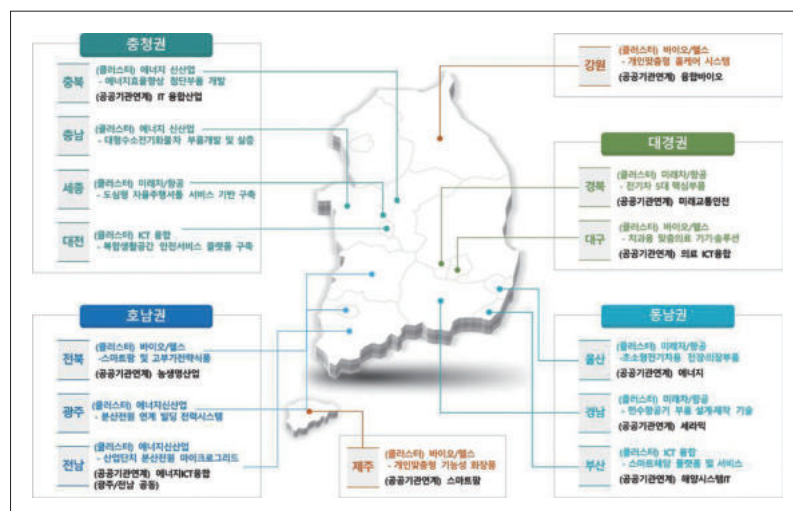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 **국기혁신클러스터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경남은 미래 자동차/항공 클러스터로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을 주로 다룸

〈그림 1-2-23〉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혁신도시별 특화 산업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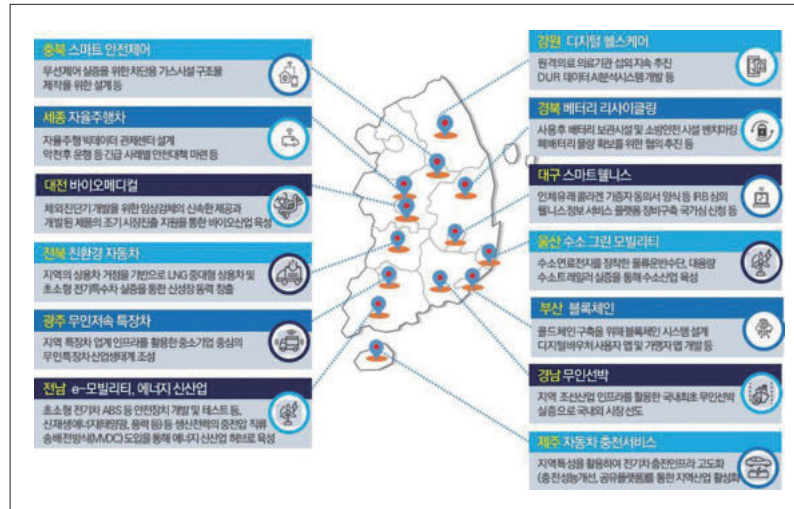
주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 신산업 육성
- 경남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조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무인선박을 실증함

〈그림 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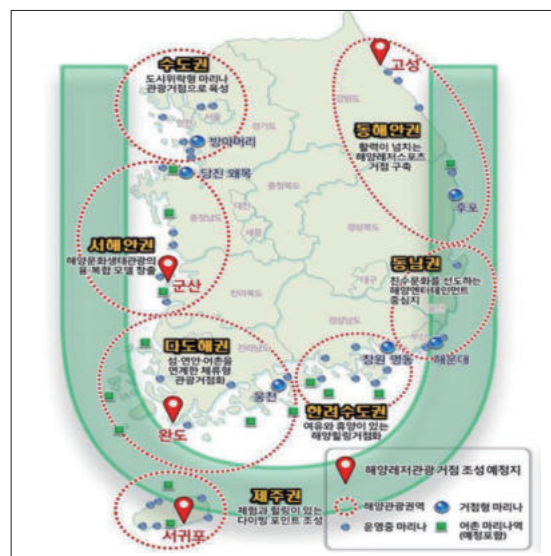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주 : 중소기업벤처부, 2019. 2차 규제특구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자료 토대로 작성.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지역문화 · 자연 유산을 특화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
-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섬 · 해안이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고, 해안 관광 루트 조성, 수상 레저 활동 등 해양관광 · 레저산업 육성 추진
-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관광상품 개발
- 경남은 한려수도권으로 여유와 휴양이 있는 해양힐링 거점화를 추진 중임

〈그림 1-2-25〉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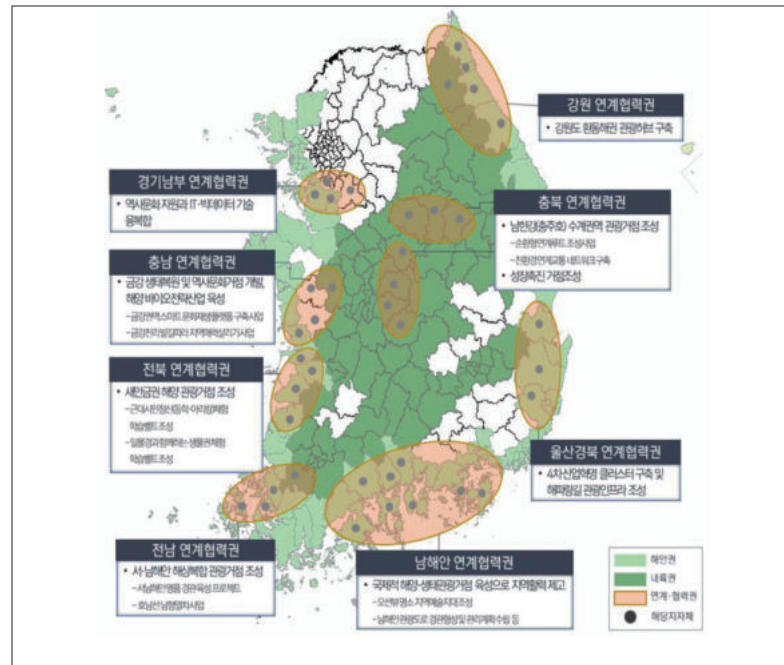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주도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 루트 육성,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연계, 공모사업 복합화 등 통합 지원
- 경남은 남해안 연계협력권을 형성하고 국제적 해양·생태관광거점 육성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오션뷰 명소 지역 예술지대 조성, 남해안 관광 도로 경관 형성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연계·협력 관광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그림 1-2-26〉

관광 분야 지역  
연계 · 협력사업  
예시



주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http://www.molit.go.kr>) 자료 토대로 작성.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3)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해소** :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고속 교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 국가 간선 도로망의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IC 설치 등 접근성 제고와 스마트톨링 등 도로 운영의 스마트화 추진
  - 제주 제2공항,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및 지방 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 서비스 강화

- 촘촘한 교통망 구성과 고속서비스와의 연결성 강화

- 기존 도로 정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환승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고속도로 IC, KTX 정차역 등 고속서비스 결절점과 연결성을 강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해소 : 광역 대중교통 혁신과 협력·조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 대도시권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비수도권 역시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폭넓게 검토
- 부산·울산권에서 양산-울산축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확충, 부산~마산 복선전철, 창원 BRT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그림 1-2-27〉

지방 대도시권 광역  
교통구상(2030) :  
부산·울산권



자료 : 국토교통부(2019), 대도시광역교통망 철도중심으로 재편.

##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1) 계획의 비전 및 전략

- 계획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함
- 전략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을 추구하고 있음

〈그림 1-2-28〉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2) 균형발전 지원체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균형발전 총괄 지표 개발 및 지역 차등 지원
- 생활밀착형 SOC 사업 확대
- 지역발전 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 지역혁신체계 구축

### 3) 3대 전략

####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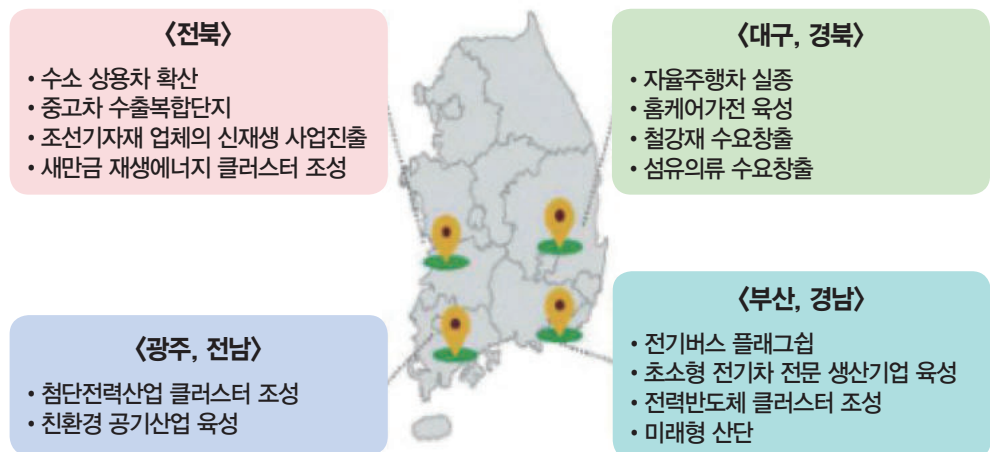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혁신도시 시즌 2
- 지역산업 혁신
-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그림 1-2-29〉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그림 1-2-30〉

시도별 주요 산업 테마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4) 시·도별 역점과제 : 경남

## ● 비전 :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

- 일자리와 복지가 어우러진 포용 사회 전환
- 4차 산업혁명과 국가혁신상장의 거점화 달성

## ● 분야별 과제

- 품격 있고 건강한 경남도민(사람)
  - 지역대학-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
  - 문화 격차 해소와 관광거점 및 특화 관광 육성
- 활력 넘치는 경남(공간)
  - 신활력으로 가득 찬 농산어촌
  - 도시재생으로 특색 있는 강소도시권 육성
  - 인구 유출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상생·협력 강화



- 일자리가 생겨나는 스마트 혁신(산업)

- 항공우주산업 중심,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의 거점 : 경남혁신도시
- 지역 산업의 스마트 혁신 및 과학기술기반 구축
- 유흥자산 활용 국유지 복합개발 및 산림자원 · 해양자원 활용

- 동 · 서부권 균형발전(역내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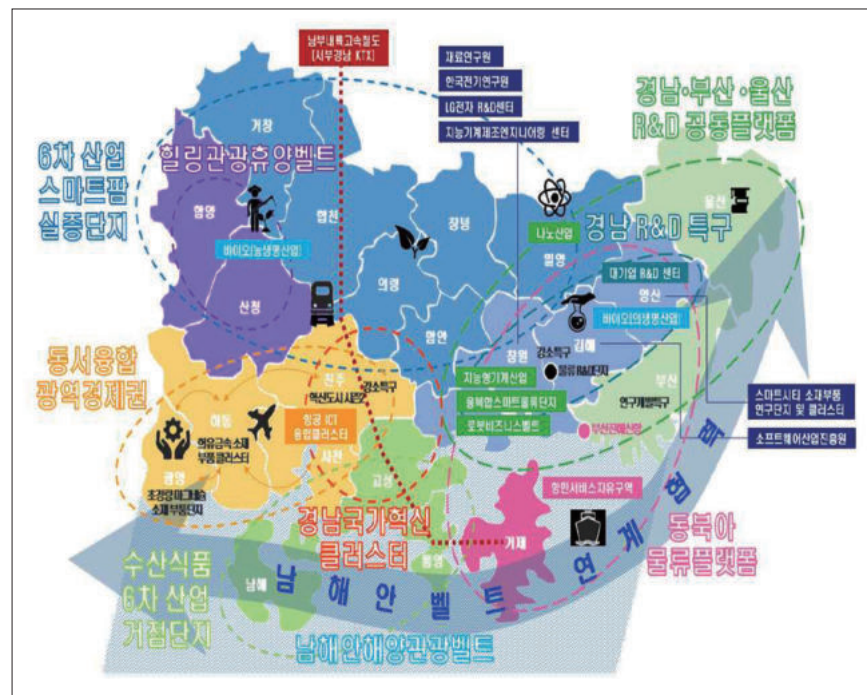
- 낙후지역 여가문화 수요 충족
- 낙후지역 2 · 3차 산업과 연계발전 도모
- 낙후지역 정주 인프라 개선 및 환경보전

### ● 공간발전구상

- 동 · 중부권 산업도시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 미래 신산업 육성
- 서부권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항공산업 육성
- 서북부권 산악지대와 남부해양권을 힐링관광휴양벨트로 육성

〈그림 1-2-31〉

공간발전구상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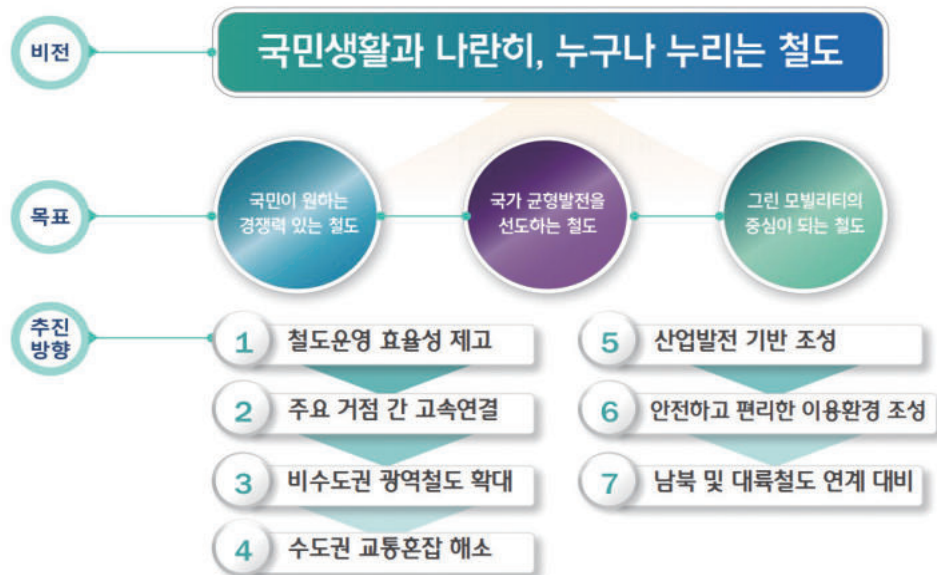
### 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그림 1-2-3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2) 7대 추진방향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 ●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 지방 대 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표 1-2-20〉

신규사업 현황  
(경상남도 대상)

구분	철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신규	광역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신규	광역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표 1-2-21〉

신규사업 현황  
(경상남도 대상)

구분	철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신규	일반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 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 ●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그림 1-2-3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계획도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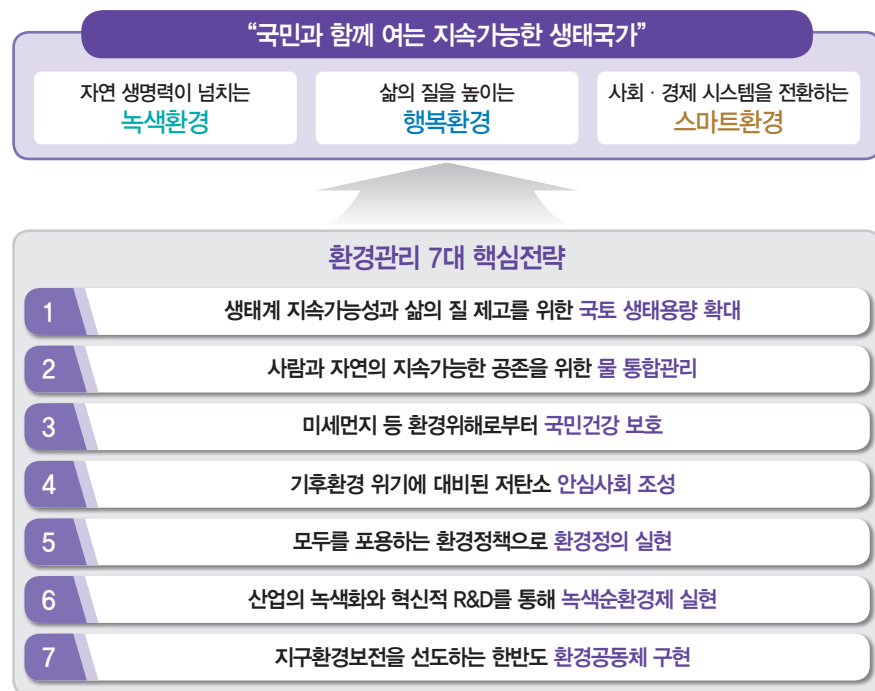
## 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로 그에 따른 목표는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세 가지로 설정됨

〈그림 1-2-3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자료 : 환경부(201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2) 국토환경 기본구상

- 3대 목표에 따른 7대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제시

#### ● 전략 1 :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 증가
- 모두가 누리는 자연 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 건강성 강화

#### ● 전략 2 :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통합 관리

-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
- 수질오염 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실현
- 유역기반·참여기반의 물통합 관리로의 전환

#### ● 전략 3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추진
-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
- 생활 주변 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 강화

#### ● 전략 4 :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 사회 조성

- 저탄소 안심 사회 기반구축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추진
-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 기회 창출 현실화
- 미래 환경 안보 관리강화

#### ● 전략 5 :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 정의 실현

- 환경 정의 구현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
-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 환경정보의 알 권리와 피해자 규제 강화

#### ● 전략 6 :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 순환 경제 실현

- 환경 R&D의 미래지향적 혁신
- 물질 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
- 환경 일자리 창출과 환경 가치 제고

#### ● 전략 7 :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

### 3) 국토생태축 기본 구상

-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의 우리 한반도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 DMZ, 도서·연안 등 해양, 5대 강을 잇는 한반도 생태골격 구축

〈그림 1-2-35〉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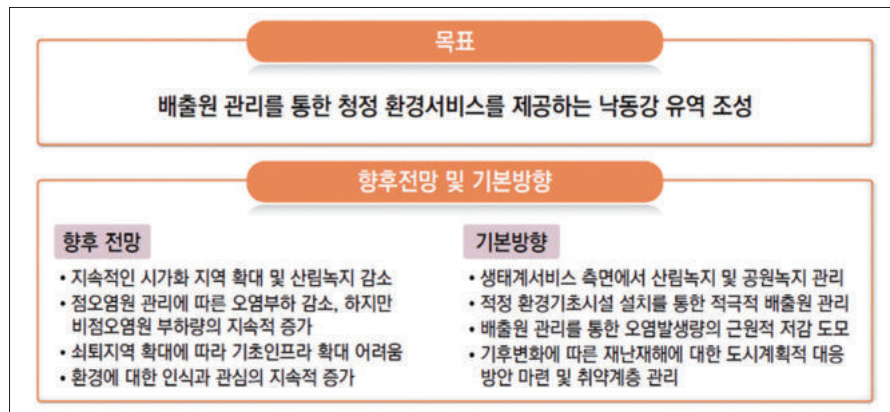
#### 4)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 낙동강 영남권

● 목표 및 기본 방향

- 낙동강 영남권의 공간환경전략 목표는 배출원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낙동강 유역 조성으로 설정함

〈그림 1-2-36〉

## 낙동강 영남권 공간환경 전략 목표 및 기본방향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

- 주요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생태환경 증진,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미래 환경 대응 제시
- 생태환경 증진 전략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복원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향상
  - 그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생물 서식공간의 보전·관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림 1-2-37〉

낙동강 영남권 생태환경  
증진 전략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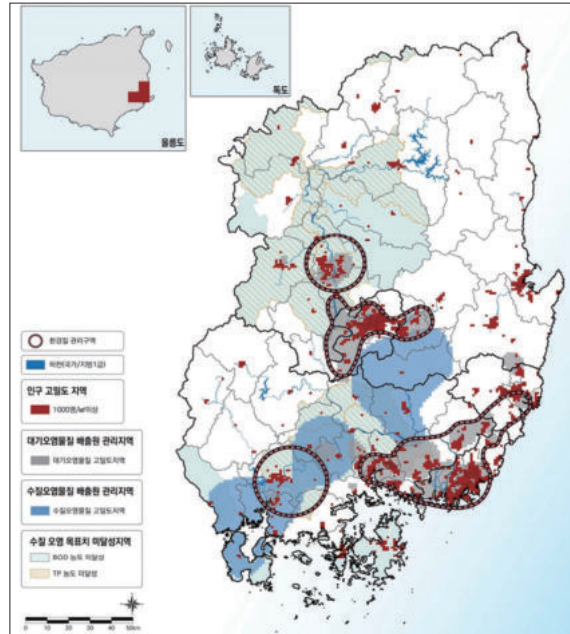


### •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전략

-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통한 낙동강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 배출원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 환경기초시설 용량 및 효율 향상을 통한 환경 부하 감소 도모

〈그림 1-2-38〉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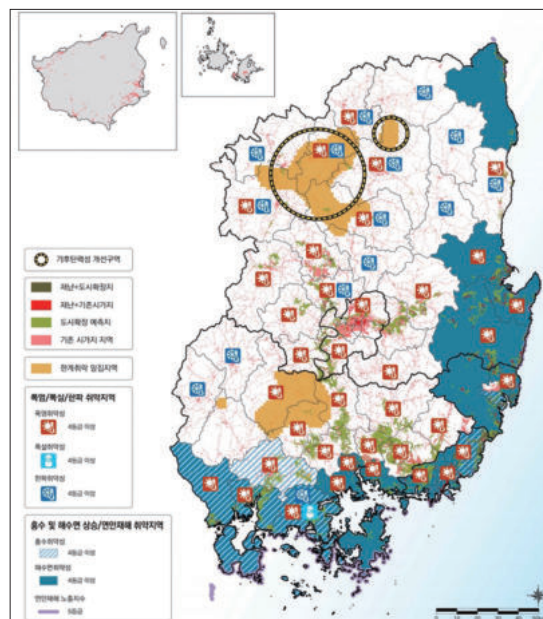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 미래 환경 회복력 확보 전략

- 도시지역의 폭염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재난재해별 취약계층 관리를 통한 영향 저감 방안 마련
- 기후회복력 확보를 위한 연안 지역 관리대책 마련

〈그림 1-2-39〉

미래 환경 회복력  
확보 전략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 1. 도민 의견수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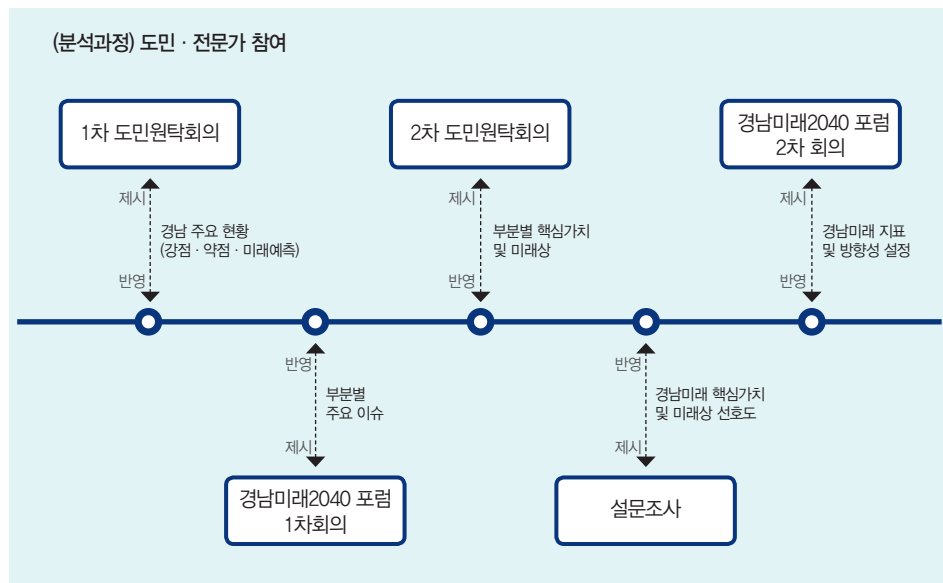
## ● 목적

- 도민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전문가 집단과 도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함
-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하여 실용성 있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 의견수렴 과정

〈그림 1-2-40〉

도민 의견 수렴과정



## • 도민원탁회의

- 제1차 도민원탁회의 : '19.06.29, 도민 85명 참석, 경남의 현재진단 및 미래예측 토론
- 제2차 도민원탁회의 : '19.10.12, 도민 70명 참석, 경남의 핵심 가치 및 미래비전 토론

〈그림 1-2-41〉

도민원탁회의





- 경남미래2040 포럼

- 경남미래2040 포럼 발대식 : '19.09.04, 포럼위원 108명 참석, 발대식 및 분과회의
- 경남미래2040 분과회의 : '19.11.26, 포럼위원 100명 참석, 경남미래 시나리오 구상

〈그림 1-2-42〉

경남미래2040 포럼



- 설문조사

- '19.10.01~10.30(30일간), 도민 1,000명을 상대로 “경남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핵심 가치 및 미래상” 등 선호도 조사

- 온라인 의견 수렴

- 경남1번가 도민 제안 : 932건
- 미래 100년 도민 제안 : 255건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민 제안 : 701건

## 2.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 1) 도민원탁회의를 통한 의견

#### (1) 경남의 강점 · 약점 · 미래예측(1차 도민원탁회의)

- 1차 도민원탁회의에서는 “경남 현재를 진단하다”라는 큰 주제로 경남의 약점, 위기, 강점, 기회에 대한 상호토론을 함
- 조별 토론과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분류한 후, 전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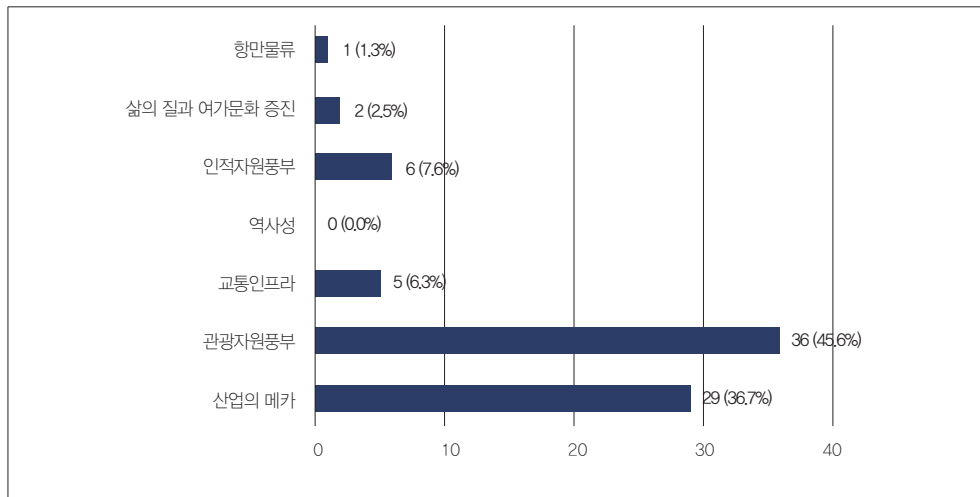
#### ● 강점

- 강점의 경우 산업의 메카, 관광자원풍부, 교통인프라, 역사성, 인적자원풍부,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 향만물류 등의 의견이 나옴

- 산업의 메카 : 기계산단보유(제조업, 조선, 원자력 사업), 기업하기 좋은 조건, 산업사회 문화적 다양성, 산업의 메카(지역별 거점화 활성화), 스마트산단 선정 등
- 관광자원풍부 : 천혜의 관광자원(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천혜의 관광자원, 관광인프라 구축), 풍부한 해양자원(관광레저, 해양자원, 남해안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 교통인프라 : 내륙철도 추진, 교통의 요충지
- 역사성 : 4.19 혁명 발상지, 3.15 혁신적 시민의식 등
- 인적자원풍부 : 발전 가능성이 높음, 가치 있는 청년이 많음
-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 : 남해안 · 지리산 천혜의 자원 웰빙의 대명사
- 향만물류 : 바다 인접, 향만물류를 통한 물류수송 용이
- 7가지의 장점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을 때, 1순위는 관광자원풍부(36명, 45.6%) 2순위 산업의 메카(29명, 37.7%), 3순위 인적자원풍부(6명, 6.3%), 4순위 교통인프라(5명, 6.3%), 5순위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2명, 2.5%)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3〉

경남미래2040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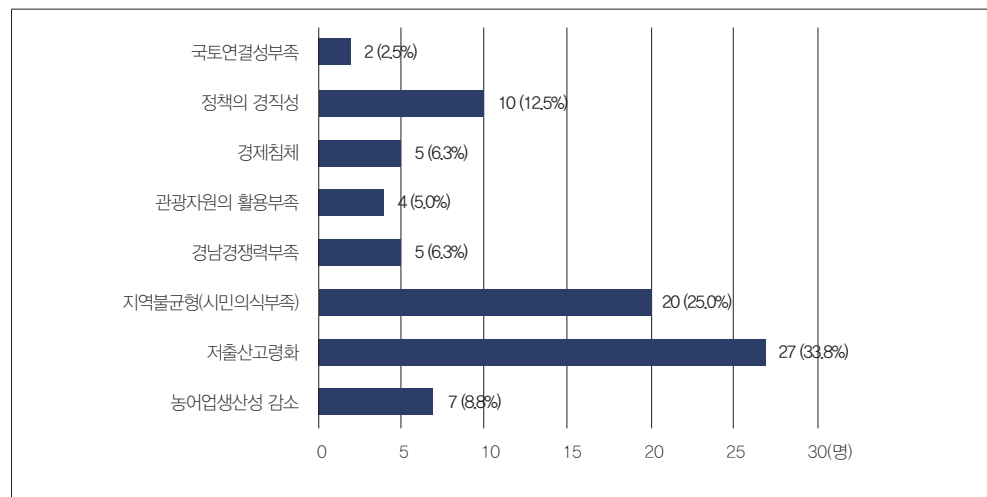
### ● 약점

- 경남의 약점으로 농 · 어업생산성 감소, 저출산 · 고령화,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 경남경쟁력부족,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경제침체, 정책의 경직성, 국토연결성 부족이 제시됨
- 농 · 어업생산성 감소 : 인구감소로 인한 농 · 어촌 현실 문제, 농 · 어촌지역이 많음, 농업의 낙후(서 · 북부 농업 낙후)등
- 저출산 · 고령화 : 인구감소(젊은 층 인구 감소 · 고령화, 인구감소 추세 인구 불균형 등), 젊은 인구 대도시 이동, 고령화 등
-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 : 도농 간 소득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지역감정, 민주 의식 부족, 변화에 대한 시각 편차, 복지 부족 등
- 경남경쟁력부족 : 편중된 경제구조, 산업편중 현상, 경제 불균형(지역), 좋은 시야의 인적, 인프라 다양성 존중 부족,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교육 다양성 부족 등

-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 지리산, 남해안, 낙동강 등의 관광자원의 활용 부족 등
- 경제침체 : 경제침체(조선 인력, LNG 기술 융합 약화), 신성장 동력 미확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제조업 저하, 공장 외곽 이전, 기술 산업 진흥 미흡, 재정 독립성
- 정책의 경직성 : 지역의 문화재 관리 소홀, 행정의 부족한 표현력·지구력, 폐쇄적 지역주의,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정보 부족, 소통구조 부족, 청년의 유출을 막을 청년정책이 없음, 기득권의 행동 등
- 국토연결성 부족 : 고속철도(KTX, SRT) 확충·통합, 교통인프라 부족, 중앙으로 향한 고속도로망 부족, 내륙지역 개발에 막대한 예산 소요, 불편한 교통(중앙으로부터 먼 거리), 수도권과 멀어 인적·물질적인 측면에서 불리 등
- 전체 우선순위에서 경남의 약점은 1순위로 저출산·고령화(27명, 33.8%), 2순위로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20명, 25.0%), 3순위로 정책의 경직성(10명, 12.5%) 4순위로 농·어업생산성 감소(7명, 8.8%) 다음으로 경남경쟁력부족(5명, 6.3%), 경제침체(5명, 6.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44〉

경남미래2040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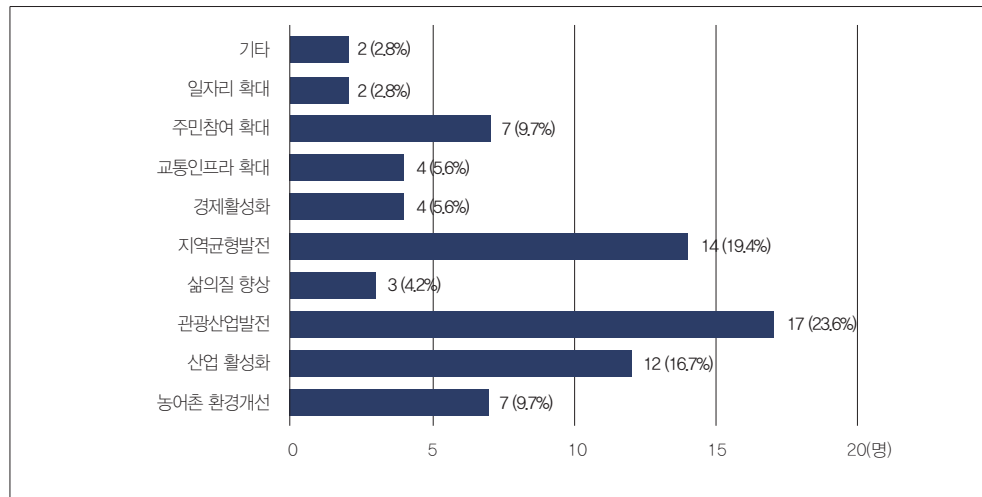


### ● 미래예측 긍정적 측면

- 도민이 예측하는 경남의 긍정적 측면은 농·어촌 환경개선, 산업 활성화, 관광산업발전,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확대, 주민참여 확대, 일자리 확대로 나타남
- 농·어촌 환경개선 :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귀촌 인구 증가, 농업 경쟁력 강화·지역 특성화 특산물 변화 등
- 산업 활성화 : 지식기반 첨단산업 발달, 신산업 유치 성장으로 지역 활성화, 1차 산업 기업화, 향노화·나노산업 소득증대와 활력, 미래산업 발전, 고부가 가치 산업 구축 등
- 관광산업발전 : 관광산업발전, 천혜 자원 메카,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 및 소득 창출,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가문화 생활 증대, 스토리텔링 관광, 지역·남해안 개발 활성화의 내용
- 삶의질 향상 : 도민 삶의 질 향상, 역동적 경남(젊은 경남), 지역별 특성화된 고른 경남, 경남 리더십 기대 등

- 지역균형발전 : 천혜 자원 활용 인구증가 가능, 지역특화(산업·문화), 지역적 특화·산업으로 세계 경쟁력 제고, 다문화가정의 확대에 인구증가 및 생산인구 증가 등
- 경제활성화 : 콘텐츠 원천소스 보유 자원이 많음, 마을 중심의 자체 경제·특성화 등
- 교통인프라 확대 : 교통기술발전, 생활권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소통력 강화,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역 맞춤형 활동가 양성 활발
- 일자리 확대 : 청년 우선 정책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발전, 관광객 자원 연계 일자리
- 도민들이 생각하는 긍정적 미래 모습 1순위는 관광산업발전(17명, 23.6%), 2순위 지역균형발전(14명, 19.4%), 3순위 산업 활성화(12명, 16.7%), 4순위 농·어촌 환경개선과 주민참여 확대(각 7명, 9.7%)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5)

경남 미래예측  
긍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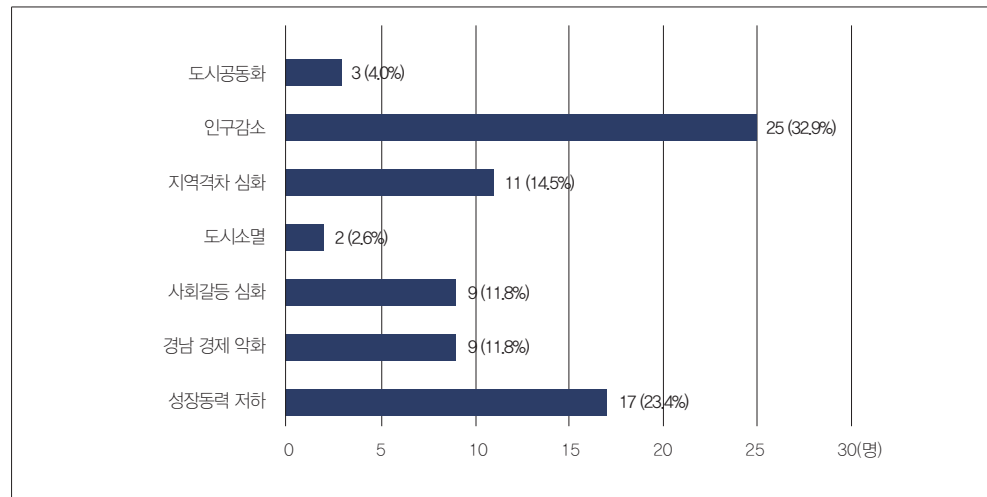
#### ● 미래예측 부정적 측면

- 경남 미래예측의 부정적 측면은 성장동력 저하, 경남 경제 악화, 사회갈등 심화, 도시소멸, 지역격차 심화, 인구감소, 도시공동화 의견이 제시됨
- 성장동력 저하 : 지속발전 가능성의 한계 봉착,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 문제, 경직되고 자기 지역 중심적인 지역 이기주의, 실질적 정책 부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발전 퇴보
- 경남 경제 악화 : 농촌 공동화(농지 부족, 농산물 생산 감소),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 침체, 일자리 창출 어려움, 경남지역 발전 저해, 외국인 투자 부족, 제조업의 사양화 등
- 사회갈등 심화 : 정책의 경직, 다문화가정 문제점 대두,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의 갈등 심화, 다문화가정 문제로 사회적 문제 발생, 갈등 심화, 지역 차별 문제, 인력 활용 시스템 부족 등
- 도시소멸 : 도농 격차의 심화로 다수의 시·군 소멸, 한계 마을의 증가(인구 유출, 농촌 벽지, 노령화) 및 노인복지 수요 증가, 청년 인구 유출 심화 등
- 지역격차 심화 :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농촌인구 농업의 쇠퇴, 시·군 통폐합, 농촌 인재 양성 부족
- 인구감소 : 젊은 층 유출, 청년층 유출, 저출생 문제,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 절벽, 청·장년층 감소·고령화 등

- 도시공동화 : 도시의 비대화, 인구감소로 통합도시 증가, 지역경제 소멸, 구도심 공동화,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 공동화, 젠트리피케이션, 식량자원 자금화 문제 등
- 경남의 부정적 측면의 미래 모습에 대한 1순위는 인구감소(25명, 32.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장동력 저하(17명, 23.4%), 지역격차 심화(11명, 14.5%), 경남 경제 악화(9명, 11.8%), 사회갈등 심화(9명, 11.8%)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6〉

경남 미래예측  
부정적 측면



## (2) 부분별 핵심 가치 및 미래상(2차 도민원탁회의)

- 관심 부분별 전략을 청취함으로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수집함
- 미래세대(경남 고등학생), 사회변화, 정치행정, 기술환경, 경제변화, 인구변화, 환경변화 분야별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전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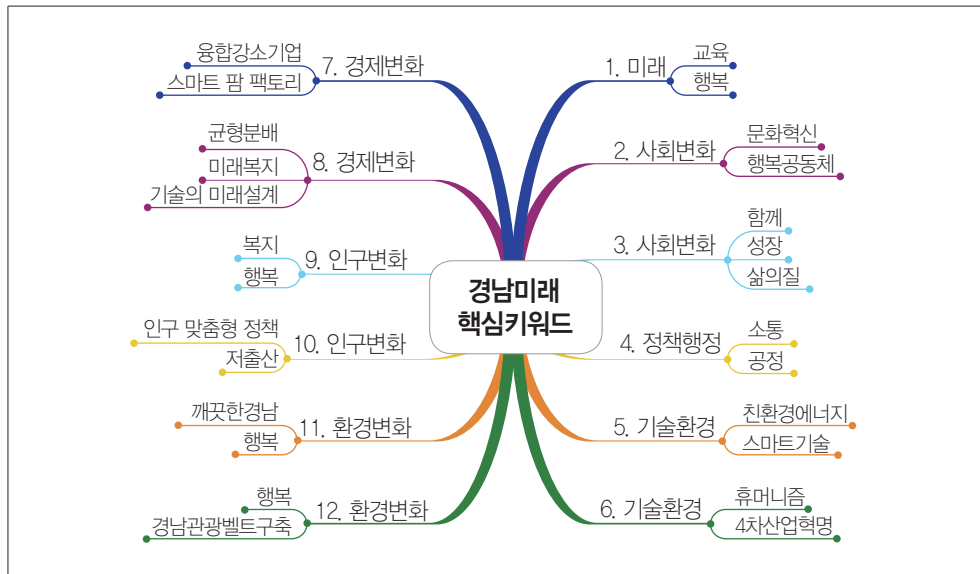
### ● 경남미래 핵심 가치

- 미래세대의 핵심 가치는 교육(교육지원, 진로, 대입, 인재 양성)과 행복(문화, 복지)이 도출됨
- 사회변화 분야에서는 문화혁신(문화, 공간, 도전), 행복공동체(인간, 가족, 행복), 함께 성장(공존, 시민참여, 청년 변화, 신중년 기회, 인구문제), 삶의 질(건강, 공기, 신중년)을 핵심 가치로 선정함
- 정치행정에 분야는 소통(참여, 시민의식, 상호신뢰, 사회혁신 등)과 공정(공평, 정의 등)이 주요 가치로 나타남
- 기술환경은 친환경에너지(친환경에너지 생활화, 핵심기술 시작), 스마트 기술(스마트화의 생활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등), 휴머니즘(사람), 4차 산업혁명(편리한 기술, 새로운 길 개척, 속도, 인공지능)을 핵심 가치로 선정

- 경제변화 분야는 융합강소기업(융합, 상생), 스마트팜 · 팩토리를 주요 키워드로 도출함
- 인구변화는 복지(일자리, 안전 등), 행복(화합 융화, 여유, 평온), 인구 맞춤형 정책(워라벨, 빈집활용, 신혼부부 가정 출산 지원, 미래먹거리 등), 저출산(국가 양육시스템, 불임 가정 지원 확대, 공동체 등)을 주요하게 고려함
- 환경변화에서는 깨끗한 경남(미세먼지, 탄소), 행복(안전한 경남, 건강한 취미생활, 공감, 소통), 경남관광벨트 구축(관광 학습, 청정 환경, 민고 먹는 먹거리, 하이브리드)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함

(그림 1-2-47)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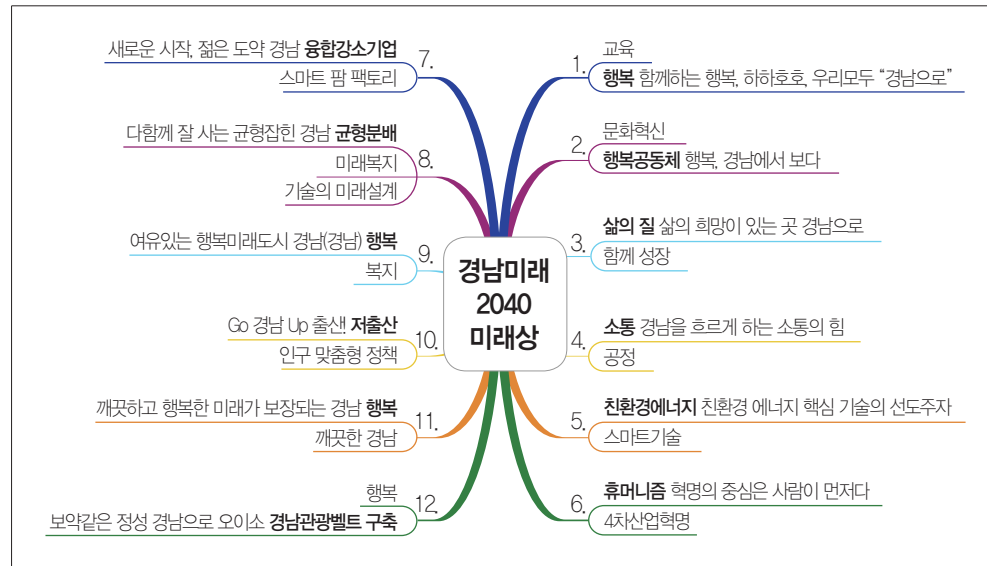


## ● 경남미래 핵심 슬로건

- 분야별로 핵심 키워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핵심 슬로건을 만들고, 조별 토의를 통해 분야별로 핵심 슬로건을 도출함
  - 미래세대 : “함께하는 행복, 하하호호, 우리모두 “경남으로””(행복)
  - 사회변화 : “행복 경남에서 보다”(행복공동체) “삶의 희망이 있는 곳 경남으로”(삶의 질)
  - 정책행정 : “경남을 흐르게 하는 소통의 힘”(소통)
  - 기술환경 : “친환경 에너지 핵심 기술의 선두주자”(친환경 에너지), “혁명의 중심은 사람이 먼저다”(휴머니즘)
  - 경제변화 : “새로운 시작, 젊은 도약 경남”(융합강소기업), “다함께 잘사는 균형잡힌 경남”(균형분배)
  - 인구변화 : “Go 경남 Up 출산!”(저출산), “여유있는 행복미래도시 경남(강남)”(행복)
  - 환경변화 :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경남”(행복), “보약같은 청정 경남으로 오이소”(경남관광벨트 구축)

〈그림 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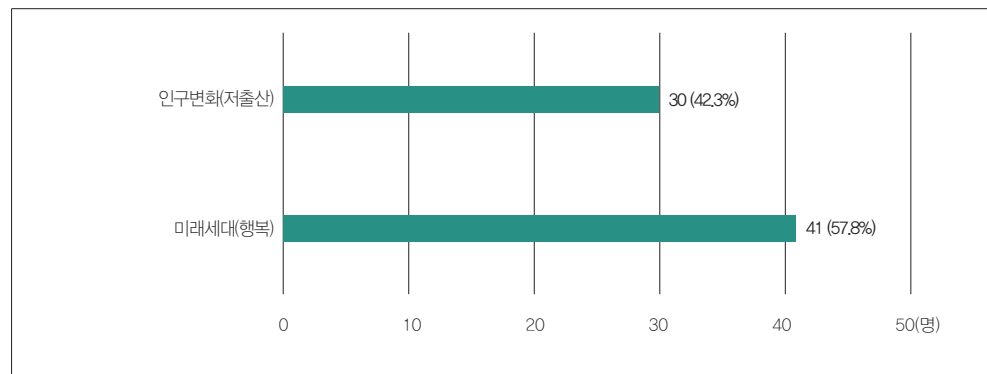
핵심 키워드에  
따른 미래상



- 행복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함께하는 행복, 하하호호, 우리모두 “경남으로””가 참여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슬로건으로 선정됨

〈그림 1-2-49〉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 2) 경남미래2040 포럼을 통한 부분별 주요 이슈 및 경남미래지표 및 방향성

### (1) 분과별 주요 이슈

#### ● 경제산업 분과

- 동북아 산업물류중심
- 고급인력육성
- 의생명 · 나노 등 신산업 육성
- 농촌과 신산업 연계 방안 강구
- 방산 산업 메카로 육성
- 기존 제조업 스마트화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육성 등

## ● 도시환경 분과

- 지방대학 발전전략 강구
- 광역도시철도 · 준고속철도 구축 등 교통인프라 개선전략
- 환경 분야 동남권 공동대응(통합공간환경계획 필요)
- 첨단환경산업과 전문 인재 육성
- 세대융합환경교육 콘텐츠 발굴
-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해안선 개발 및 관광자원화
- 응급의료체계 구축
-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 정주 여건 개선방안
- (자연재해, 화재, 시설, 보안, 범죄) 안전 환경 조성
- 국민 여가 대응 섬 개발 전략 필요
- 남해안 발전방안 강구 등

## ● 사회관광 분과

- 지역문화 분권 쇄신
- 배리어 프리 경남
- 장애인 관광인프라 구축
- 원경남(생활문화공동체 구축)
- 경남의 산업 축을 관광으로 전환
- 남북관계에 있어 농업 매개체 활용
- 다양성, 성평등, 참여와 소통, 효 문화, 사회적 자본
- 인문학적 개념 중시
- 젊은 농촌, 건강명소, 힐링라이프 등



## (2) 분과별 경남미래 시나리오

### ● 경제산업 분과

- 행복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도민이 바라는 행복을 구체화하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세부 전략 수립
- 인력양성 방안(경남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필요, 노년 일자리도 함께 고민 필요
-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로 경쟁력 향상, 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스마트 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고민 함께 필요
-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산업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 도시환경 분과

- 경남을 떠나는 이유 중 상당 부분 의료, 교육 부족 지적
-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강화하고 산업과 관련된 교육,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적 인구 유입 촉진 필요
- 인구목표는 통계청 추계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비전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부·울·경 중심의 광역권 형성 필요. 광역권 형성 수단으로 광역교통망 형성에 우선 투자 필요
- 압축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 제시 필요. 생활권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함

### ● 사회관광 분과

-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인구 유출(특히 청년층)에 대한 대책 필요. 20, 30대가 원하는 공정, 정의, 평등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함
- 관광, 건축, 도시설계 등의 기준을 장애인에 맞춰야 함
-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 특히 교육과 의료 격차의 완화 중요
- 새로운 사회에 맞는 선도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함. 도민이 봤을 때, 경남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 필요
- 새로운 사회에 맞는 선도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함. 도민이 봤을 때, 경남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 필요
- 경남의 인구정책, 인력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 이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3)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경남미래 핵심 가치 및 미래상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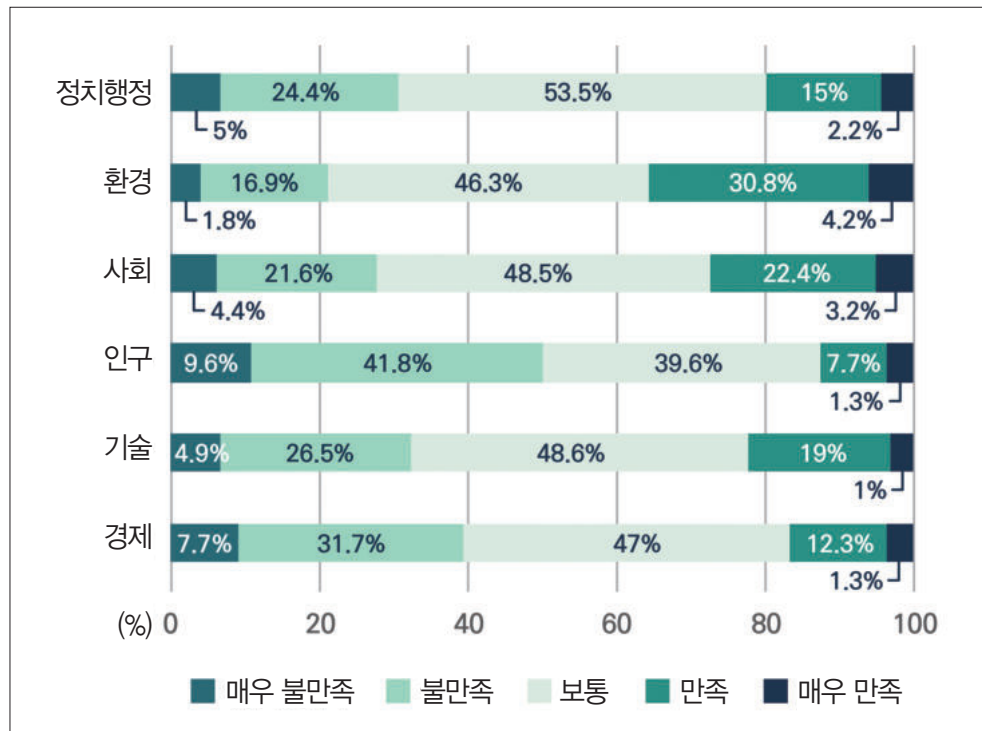
#### (1) 경남에 대한 인식

##### ● 현재 경남의 분야별 만족도

- 인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을 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인구의 경우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도출됨
- 인구 분야는 부정적 답변이 높음 : 불만족(421명, 41.8%), 매우 불만족(97명, 9.6%)
- 환경 분야는 보통을 제외한 답변에서 긍정적 답변(“만족”, “매우 만족”)이 부정적 답변(“불만족”, “매우 불만족”)보다 높음. 그 외의 분야는 부정적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남
- 환경 분야의 긍정적 답변은 35.0%, 부정적 답변은 1.8%
- 경제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39.4%, 긍정적 답변은 13.5%
- 기술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31.4%, 긍정적 답변은 20.0%
- 사회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25.9%, 긍정적 답변은 25.5%
- 정치행정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29.3%, 긍정적 답변은 17.2%

(그림 1-2-50)

분야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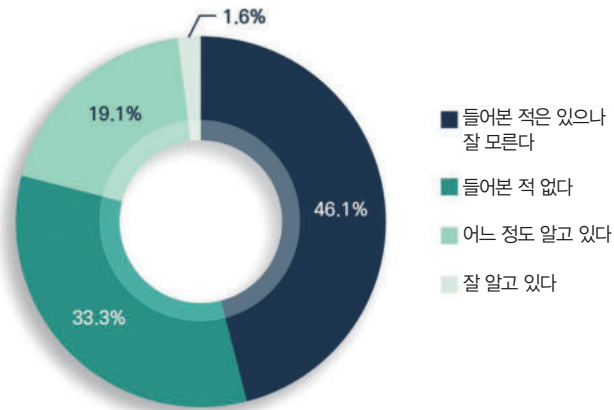


### ● 경남의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

- 도민들은 경남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들어 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는 답변이 46.1%(46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임
- 다음으로 들어본 적 없다 33.3%(337명)로 조사됨

〈그림 1-2-51〉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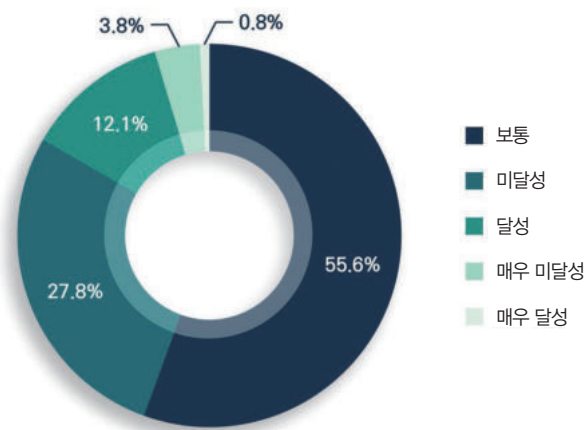
###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 ① 비전 :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남
  - 과거 비전 달성도에 관한 질문에서 '보통'(560명, 55.6%)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미달성'(280명, 27.8%)이 나타남
  -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답변은 31.6% : 미달성(280명, 27.8%), 매우 미달성(38명, 3.8%)
  - 긍정적 답변은 12.9% : 달성(122명, 12.1%), 매우 달성(8명, 0.8%)

〈그림 1-2-5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비전  
달성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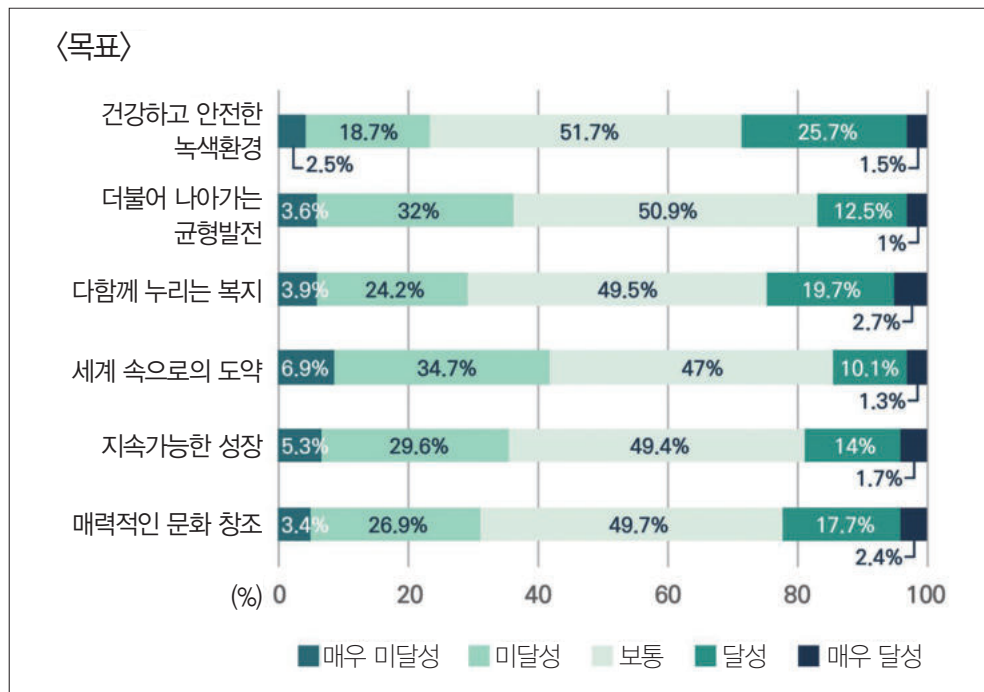


## ② 목표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6가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다함께 누리는 복지”, “세계 속으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문화 창조”로 제시됨
- 목표별 달성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보통”을 답한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 답변(미달성, 매우 미달성)비율이 높음
- 특히나 “세계 속으로의 도약”은 부정적 답변이 41.7%로 6개의 목표 중 가장 미달성 정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음
-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긍정적 답변은 27.2%, 부정적 답변은 21.2%
-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의 부정적 답변은 35.6%, 긍정적 답변은 13.5%
- 다함께 누리는 복지의 부정적 답변은 28.1%, 긍정적 답변은 22.4%
- 세계 속으로의 도약은 부정적 답변 41.7%, 긍정적 답변 11.4%
- 지속가능한 성장의 부정적 답변은 35.0%, 긍정적 답변 15.7%
- 매력적인 문화 창조는 부정적 답변이 30.3%, 긍정적 답변 20.1%

〈그림 1-2-5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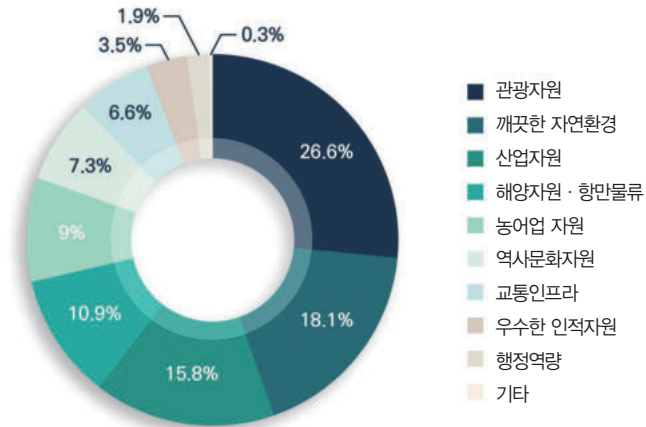


### ● 현재 경남의 가장 큰 강점

- 경남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관광자원(450명, 26.6%) 다음으로 깨끗한 자연환경(306명, 18.1%)으로 경남 본연의 자연자원과 관련한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점 중 가장 답변이 낮았던 항목은 행정역량(32명, 1.9%)과 우수한 인적자원(60명, 3.5%)으로 조사됨

〈그림 1-2-54〉

현재 경남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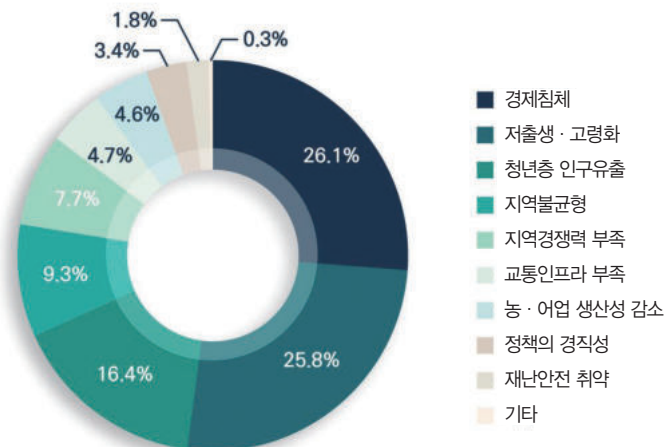


### ● 현재 경남의 가장 큰 약점

- 도민이 생각하는 경남의 큰 약점은 경제침체(498명, 26.1%), 저출생·고령화(492명, 25.8%)로 나타남
- 세 번째로 청년층 인구유출(313명, 16.4%)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와 연계하여 인구구조의 문제,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경제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림 1-2-55〉

현재 경남의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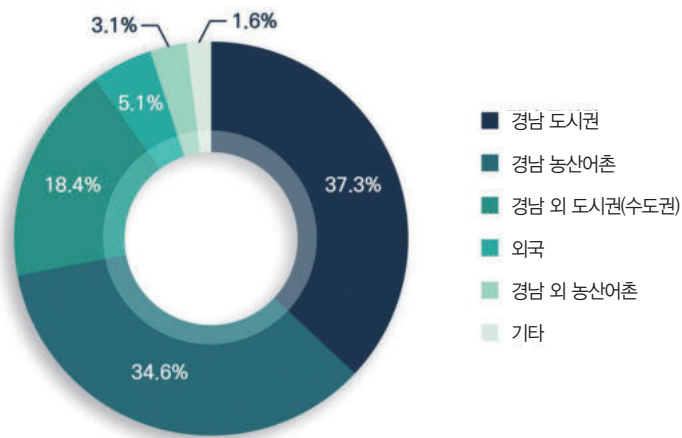
## (2) 경남의 미래상 및 방향

### ● 20년 후(2040년) 살고 싶은 곳

- 20년 후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경남 내를 답한 비율이 71.9%로 도출됨
- ‘경남도시권에서 살고 싶다’(376명, 37.3%)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경남 농산어촌(348명, 34.6%)으로 조사됨
- 경남 외는 26.5%(265명)로 그 중 5.1%(51명)는 해외 거주를 희망함

〈그림 1-2-56〉

20년 후 살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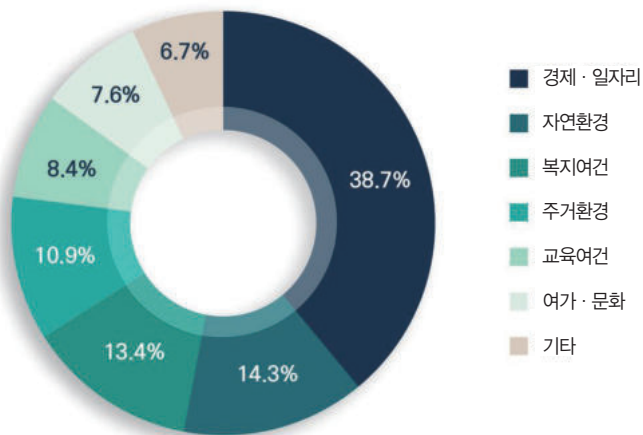


### ● 경남을 떠나고 싶은 큰 이유

- 경남을 떠나고 싶은 큰 이유는 경제·일자리(46명, 38.7%)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자연환경(17명, 14.3%)과 복지여건(16명, 13.4%)으로 나타남

〈그림 1-2-57〉

경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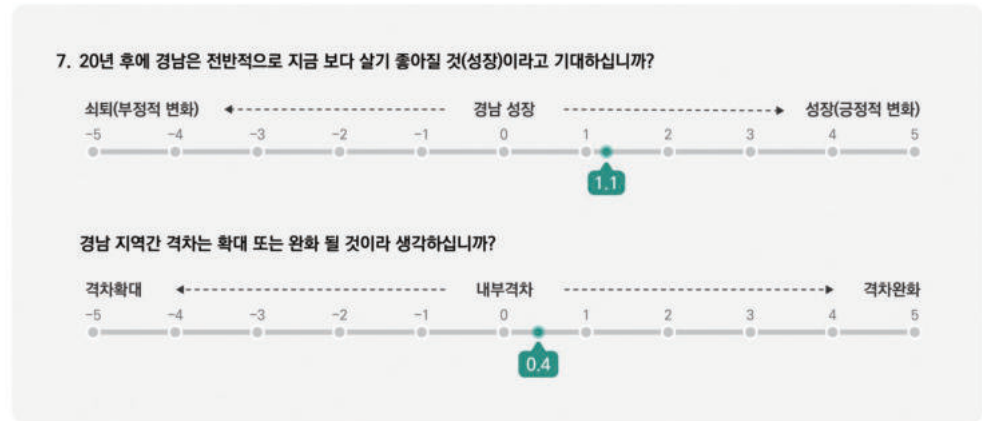


● 20년 후 경남은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질 것(성장)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20년 후 경남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변화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경남 지역간 격차에 대해서는 내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58〉

현재 경남의 성장과  
지역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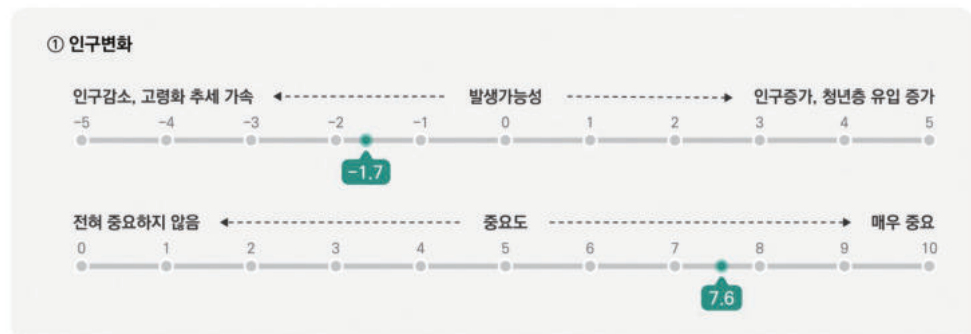


① 인구변화

- 인구변화 측면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 가속과 같은 부정적 방향(-1.7점)으로 예상함
- 인구변화의 문제의 중요도는 0~10점 중 7.6점으로 도민들이 인구변화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선 경남의 약점 답변과 더불어 도민들은 경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59〉

현재 경남의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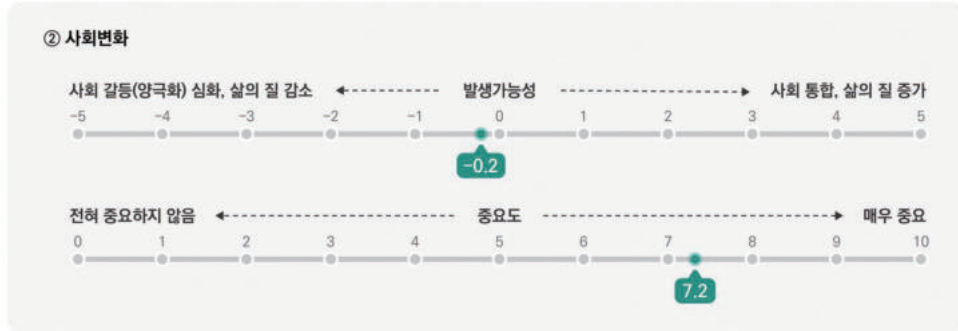


## ② 사회 변화

-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사회갈등(양극화) 심화, 삶의 질 감소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평균 점수(-0.2점)가 형성됨
- 사회변화에 대한 중요도는 7.2점으로 경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그림 1-2-60〉

경남의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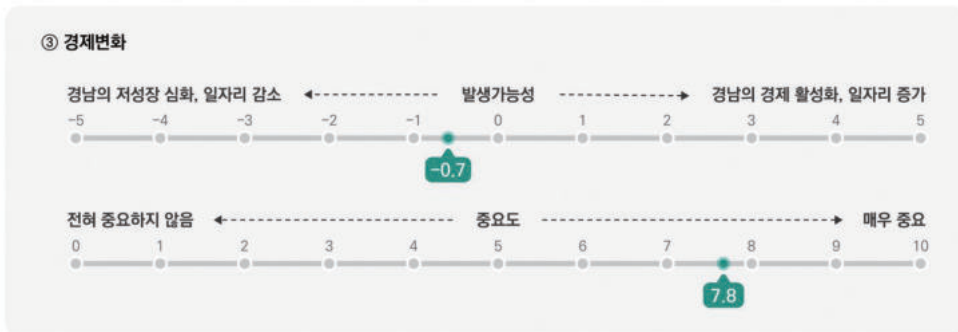


## ③ 경제 변화

- 앞으로의 경남의 경제 변화 전망에서는 부정적 방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평균 점수는 -0.7점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요도는 7.8점으로 형성됨
- 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경남의 미래에 대하여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를 예상함

〈그림 1-2-61〉

경남의 경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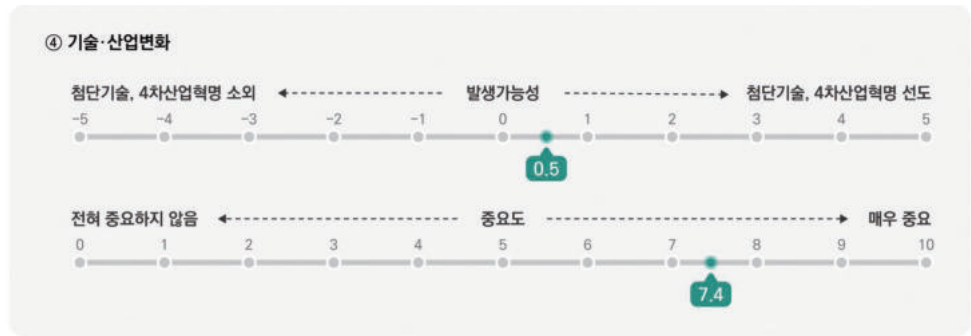


## ④ 기술 · 산업 변화

- 기술 · 산업변화는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같은 긍정적 방향의 점수(0.5점)가 도출됨
- 중요도는 7.4점으로 기술 · 산업변화는 경남의 미래에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1-2-62〉

경남의 기술·산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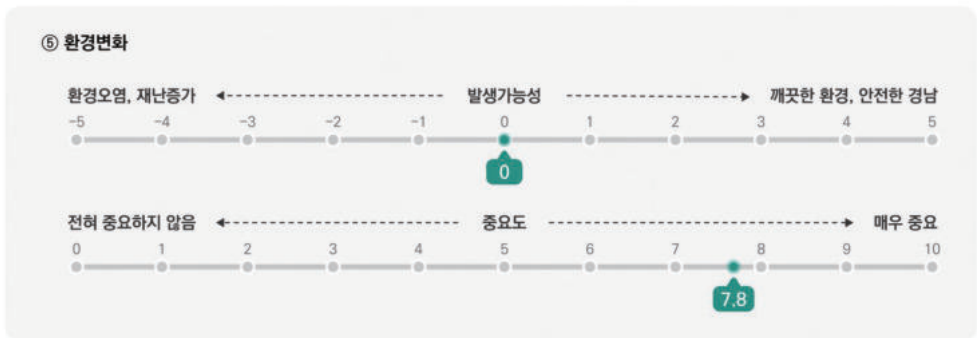


## ⑤ 환경변화

- 환경변화에 대한 중요도는 7.8점으로 경제변화와 함께 가장 높은 중요도가 도출됨
- 하지만, 부정적 방향(환경오염, 재난증가)과 긍정적 방향(깨끗한 환경, 안전한 경남)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음(0점)

〈그림 1-2-63〉

경남의 환경 변화



## ⑥ 정치행정 변화

- 정치행정의 변화는 시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실현과 같은 긍정적 방향(0.3점)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치행정의 중요도는 7.1점으로 경남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그림 1-2-64〉

경남의 정치행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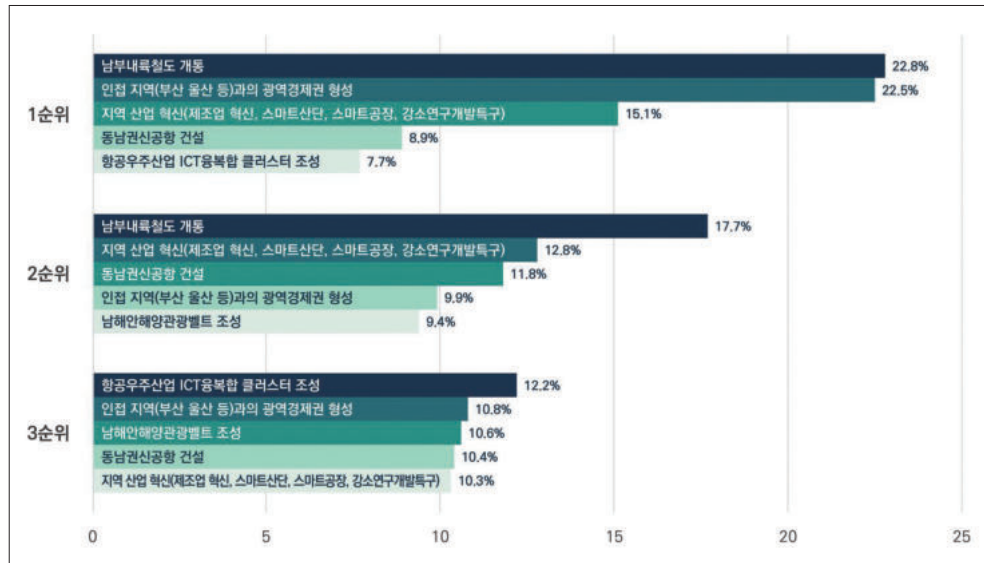


### ●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

- 경남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12개의 사업 중 변화에 영향력을 끼칠 1, 2, 3순위를 질문함
- 도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남부내륙철도 개통은 1순위,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임
- 다음으로 인접 지역(부산, 울산 등)과의 광역경제권 형성, 지역 산업 혁신(제조업 혁신,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 강소연구개발특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1, 2, 3순위 내에 상위권을 차지함

(그림 1-2-65)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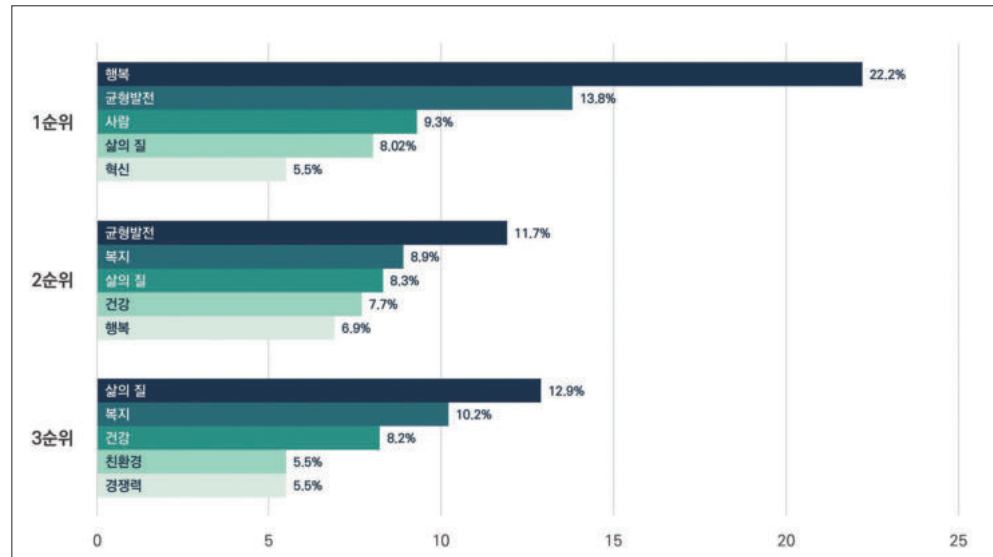


### ●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

-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 핵심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28개의 가치 중 주요한 핵심 가치를 3순위까지 선정하게 함
- 1순위에서는 행복이 가장 주요한 미래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음. 다음으로 균형발전, 사람 등의 순임
- 행복 22.2%, 균형발전 13.8%, 사람 9.3%, 삶의 질 8.02%, 혁신 5.5%
- 2순위에서는 균형발전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복지, 삶의 질 등의 순임
- 균형발전 11.7%, 복지 8.9%, 삶의 질 8.3%, 건강 7.7%, 행복 6.9%
- 3순위는 삶의 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 건강 등의 순으로 도출됨
- 삶의 질 12.9%, 복지 10.2%, 건강 8.2%, 친환경 5.5%, 경쟁력 5.5%
- 전체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도민들은 행복, 균형발전, 복지, 삶의 질, 건강의 키워드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개인적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관들을 핵심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66〉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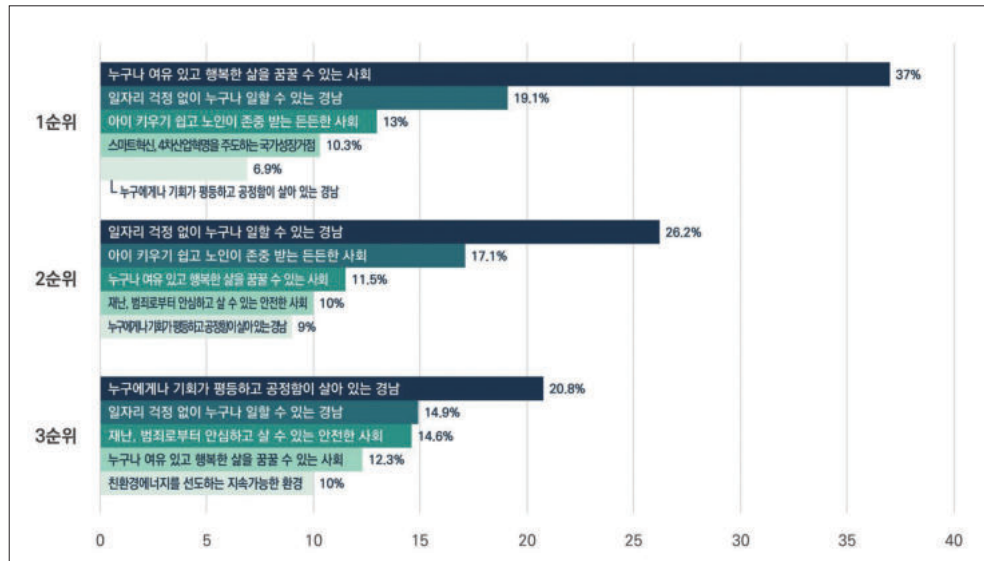


#### ● 2040년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

-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 9가지를 제시하고 주요 미래상을 3순위까지 선정함
- 1순위에서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37.0%)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음
  -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 : 19.1%
  - 아이 키우기 쉽고 노인이 존중 받는 든든한 사회 : 13.0%
  - 스마트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 성장 거점 : 10.3%
  -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경남 : 6.9%
- 2순위에서는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26.2%)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아이 키우기 쉽고 노인이 존중 받는 든든한 사회 : 17.1%
  -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 : 11.5%
  - 재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10.0%
  -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경남 : 9.0%
- 3순위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있는 경남”(20.8%)을 선택함
  -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 : 14.9%
  - 재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14.6%
  -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 : 12.3%
  - 친환경에너지로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 10.0%
- 미래 핵심 가치와 함께 미래상 또한 “행복”에 대한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 1-2-67〉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목표)



#### 4) 온라인 의견

- 경남1번가의 932건(도민이 바라는 행정 역할), 도민 아이디어 255건(도민이 바라는 경남 미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민 제안 701건(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을 통해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의견 수렴

##### (1) 도민이 바라는 행정 역할

- 경남1번가를 통해 도출된 도민이 바라는 행정의 역할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단어는 지원이며, 다음으로 지역, 경남, 운영, 설치, 교육, 사업 등이 나타남
- 행정이 경남의 사업, 교육 등의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바람

〈그림 1-2-68〉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 (2) 도민이 바라는 경남미래

-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아이들, 행복, 미래, 산업, 문화, 도시, 일자리 등으로 미래 세대와 삶과 공간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나타남

〈그림 1-2-69〉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 (3)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핵심 가치

-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핵심 가치로는 교육, 환경, 미세먼지, 필요, 지역, 일자리, 농업 등이 도출됨
-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 교육, 환경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가치가 도출됨

〈그림 1-2-70〉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 3. 도민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도민이 생각하는 경남의 가장 큰 강점은 관광자원, 자연환경, 산업자원으로 나타남. 강점은 미래 긍정적 예측과 연계되어 경남의 관광산업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도민원탁회의에서 경남의 강점은 관광자원 풍부, 산업의 메카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관광자원, 깨끗한 자연환경, 산업자원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산업자원들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은 미래의 긍정적 측면과도 연계할 수 있음
-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 경제침체를 경남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도민들은 미래의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고 있음
  - 도민원탁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지역의 불균형 등의 순으로 경남의 약점이 나타남
  -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침체, 저출생·고령화 등이 경남의 약점으로 조사됨
  - 또한 설문조사에서 20년 후 거주지에 대한 답으로 경남 외를 선택한 인원 중 이유를 묻는 설문에 “경제·일자리”의 문제를 이주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음
  - 도민들은 경남 부정적 미래 모습에 대하여 인구감소, 성장동력 저하, 경제 침체를 가장 높게 선택함
- 도민들은 행복, 삶의 질, 복지와 같은 질 높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균형발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도민 설문조사에서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는 행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균형발전, 복지, 삶의 질 등이 나타남
  - 또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 ‘행복’, ‘일자리’를 핵심으로 한 미래상이 우선순위로 선택됨
  - 도민원탁회의에서는 제시한 여러 키워드와 미래상에서 ‘행복’을 경남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함
- 또한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 행복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기반한 경남의 미래 방향을 선호하고 있음
  - 온라인 의견을 살펴보면 도민이 바라는 경남미래에서 아이들, 행복, 도시, 미래, 환경, 산업, 일자리, 사람, 사회 등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됨. 이는 도민들이 미래세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환경, 경제, 사회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경남”의 키워드에 교육, 미세먼지, 필요,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남. 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공간적 측면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인력 양성,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지역격차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함**

-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경남의 고급인력 양성과 스마트화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주거환경, 안전 환경 등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경남의 미래를 위해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여러 여건(공간, 복지, 인프라)의 변화를 고려함
- 사회관광 전문가들은 지역문화 쇄신과 배리어 프리, 다양성과 소동, 젊은 농촌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미래에 대하여 인구소멸과 격차(교육, 의료, 장애인 시설 등)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